주체 90(2001)년

인터넷

구국의 소리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6.15주간 편집부

노작
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치사전
6 통일혁명당

통일혁명당 문헌
7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
10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비방 · 중상하는 박정희 일당의 책동규탄

구국의 소리 방송에 대하여
11 구국의 소리 방송과 한민전의 실재 시비
14 구국의 소리 방송의 역사, 위상, 내용

구국의 소리 방송 개국일 31주년
18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 주체의 전파
19 ≪구국의 소리≫방송 개국 31주년을 축하하며
20 주체의 전파 그 자랑찬 행로

구국전선 지지격려문
22 구국전선 지지격려문1
22 구국전선 지지격려문2
23 더욱 헌신분투하겠습니다!

축하문
24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축하하며

≪인터넷 구국의 소리≫
25 모두 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자
26 구국의 소리 방송순서
28 ≪인터넷 구국의 소리≫조회수
29 진보네트워크≪불온≫ 공방
29 정통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31 정보통신윤리위는 진보넷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특집방송
32 새해특집방송
33 구국의 소리 2.16 특집방송
34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방송
36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특집방송
38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 특집방송
39 조국광복 56돌 기념특집방송
40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하는 특집방송
41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특집방송

시
42 8월의 아침에

청년주체주의자 관련방송
43 일체의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45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48 그리움과 경모의 7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
50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6.15)
51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7.8)
52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9.9)
53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10.10)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54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맞이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 중에서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 왔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패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혁명역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적극 느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 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 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역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남조선의 광범위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 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놓은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이승만이 얻은 득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 표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와 민족분열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 빨리 확대 강화되는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유혈적인 탄압책동을 벌여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 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수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역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 애국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역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었던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남조선 전역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이승만 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수들의 어떤 아성도 능히 짓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이롭게 전변되었습니다.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노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당은 광범위한 민주주의 역량의 통일전선체적 연합체인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를 묶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수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역량에 대한 파쇼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노골적인 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기관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수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역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었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 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역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날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위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러를 감행하는 것은 원수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 직후에도 여운형 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 선생 역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하지 않으며 진보적 역량을 암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이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노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의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읍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원수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댓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속에서도 굴하지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읍니다(우렁찬 박수).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 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노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 건설을 다그치었읍니다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었읍니다. 노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이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우렁찬 박수오래 계속).

통일혁명당의 정치적 입장과 투쟁목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이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 있읍니다.

통일혁명당의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이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 위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염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밝혔읍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침략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우렁찬 박수).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읍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이고 있읍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역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역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수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읍니다.

혁평적 역량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노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 것과 함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 수 있읍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 밑에 로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 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역량은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 강화될 수 있읍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열이 늘어나고 혁명조직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을 장성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수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어떤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멈춰 세울 수 없읍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인민들은 자기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조선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읍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 있읍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통일혁명당

정치사전

통일혁명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정치적참모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25권, 307페지)

남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여러 도들에서 지하혁명조직들 뭇고 당의 지도핵심을 키웠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위원회와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을 내오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받아 들여 그 대렬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도서들을 출판하고 당기관지인 비합법적신문≪혁명전선≫과 합법적출판물인 ≪청맥≫을 발간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급 당 조직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였다. 한편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게 하였다. 이와 함께 비합법적조직으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비밀독서회를 내오고 합법적조직으로서 ≪60년대학사회≫, ≪청년문학가협회≫, ≪청맥회≫등 수많은 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려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키워 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1964년 6.3봉기와 1965년 8월투쟁 등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67년 6.8부정≪선거≫와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간적인 공업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농촌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기관들에까지 당조직이 확대되였으며 당의 핵심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창당을 위한 준비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자 1969년 8월 25일 서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핵심들로써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으며 승리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은 창건이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원쑤들의 거듭되는 반동공세를 물리치면서 자기 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꾸려 놓았으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오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으며 투쟁과정을 통하여 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 / 통일혁명당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1969년 8월 25일, 우리 통일혁명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 당으로서 역사적인 출범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그날로부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시대, 주체시대의 세계적 사조이며, 한국혁명의 유일무이한 지도적 지침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이 10년 간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군사파쇼 지배하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희생을 이겨내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치면서 승리와 영광의 연륜을 쌓아왔다. 10년을 헤아리는, 이 패에 배어있는 연륜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라는 한국의 혁명가와 애국민중의 확고한 신념이 흘러넘치고 있다. 따라서 창당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 통일혁명당의 지도중핵과 당원들의 불타는 심정은. (일찌기) 혁명의 새벽 길을 개척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인류사에 주체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오늘날 위대한 주체의 조국을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며, 백전백승하는 **김일성**주의의 밝은 빛으로 한국민중의 앞날을 밝히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영원한 충성의 열정으로 넘치고 있다.

1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 당인 통일혁명당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당만이 혁명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으며, 세련된 지도중핵을 육성하지 않고는 혁명적 당을 건설할 수 없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당건설방침의 지도아래 탄생의 첫 울음소리를 울렸다. 혁명의 영재이시고 사상이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남조선 인민은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 당을 가지고, 그 합법적인 지위를 싸워서 얻어내지 안으며 안 됩니다.≫

위대한 수령께서 명시하신 이 불후의 강령적 명제는 한국혁명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체의 당건설방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한국 혁명가들은 새로운 결의와 확신을 가지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하여 지하전선으로 용감하게 진출하였다. 그 가운데는 주체의 혁명관에 투철했던 한국 혁명가의 귀감인 김종태, 최영도동지들도 있었다. 통일혁명당 창립을 발기했던 혁명가들은 우선 스스로를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사상무장하기 위하여 사상수양에 온 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혁명의 지도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당의 지도핵심을 육성하는 활동에 전력하였다. 합법적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혹독한 상황에서도, 지도핵심들은 위대한 수령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들 속에 보급하고, 각지에 연구그룹과 대중단체를 결성하였으며, 대중적 외곽 속에 정선된 당원들로 당의 기층조직을 형성했다.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은 당의 조직사상적 기반을 구축하는 투쟁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당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사상이론 활동은 새로운 활기를 띠며 본격화되었고, 당조직건설을 지역적 지도부와 분산된 기층단위를 전일적 조직으로 체계화하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호와 전라남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지도부는 지도핵심과 당원 속에서 혁명이론학습을 한층 더 심화하고 광범한 애국민중이 주체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정치선전을 확대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당내 교육지로서 지하신문 ≪혁명전선≫, 대중계몽지로서 합법잡지 ≪청맥≫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출판물은 당 내외에 광범하게 보급되어 당원교육에 유력한 수단으로 되었으며,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문화연구회, 민족주의연구회와 같은 합법적 연구단체와 각종 연구써클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혁명이론 연구활동을 넓게 벌여 나갔다. 창당준비사업은 **김일성**주의 원리를 연구 · 체득하고, 선전 · 보급하는 분야뿐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투쟁강령과 전술원칙을 작성하고 이론활동과 실천투쟁을 결부시키며 당건설과 대중운동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당의 대중적 기반 조성, 당지도부 구성을 위한 간부양성, 각계각층 민주인사와의 연합전선의 형성 등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통일혁명당의 당면 투쟁임무가 제시되었고 이것은 창당 준비과정에 있어서 당조직의 활동지침으로 되었다.

당시, 산업지대와 농촌지역에 당세포가 만들어지고, 각급 지도부의 출현과 동시에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근로민중 속에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청맥회, 경우회, 청년경제복지회, 청년문학가협회 등 합법적 대중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비합법적 통일전선체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이 결성되었다. 결성 후 곧바로 당조직은 대중운동과 투쟁의 영역으로 과감히 진출하여, 일련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조직 · 전개했다. 당면한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불꽃속에서 당조직을 검열하였고, 당원을 단련시켰으며, 대중 의식화, 조직화를 현저하게 촉진시켰다. 이처럼 창당준비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단계에 다다른 1968년, 파쇼주구들은 ≪통일혁명당사건≫을 날조 · 조작하여 서울시와 전라남도 조직의 일부를 파괴하고 수

백 명의 당지도부 성원과 당원, 애국자들은 검거·투옥하였다. 그러나 그 요람기에 통일혁명당을 압살시키려던 군사파시스트일당의 흉악한 기도는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우리들은 비록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묵, 윤상수동지들을 비롯하여 많은 혁명전우를 잃어버리는 참혹한 희생을 치르기는 하였지만, 최최의 시련을 환강하게 이겨내고 당조직을 재건하여 마침내 한국에 통일적인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제를 성공리에 달성했다. 마침내 1969년 8월 25일 우리들은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당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선언과 강령을 국내외에 발표하였다. 창당을 발표하는 그 역사적 순간에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한국혁명의 전위당임을 자랑스럽게 천명하였다. 영광에 찬 **김일성**주의당, 통일혁명당의 창당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한국민중의 혁명투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오랜 세월 착취와 압정에 고통받았던 한국의 근로민중은 비로소 자주성을 수호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참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실패와 좌절의 악순환 속에서 고생했던 한국혁명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김일성**주의 기치 아래 오로지 승리의 정상을 향하여 파죽의 기세로 나아가는 상승궤도를 탈 수 있게 되었다.

통일혁명당의 창당은 한국의 판도에서 **김일성**주의 당건설이론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한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한국혁명의 실천에 있어 철저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뒷받침인 것이다.

2

전일적인 전위당인 통일혁명당의 창당은 암중모색과 우여곡절을 되풀이했던 과거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었다.

주체의 사상과 이론, 방법의 체계인 위대한 **김일성**주의에 의해 지도되는 통일혁명당은 혁명역량을 성장시키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 활동과 대중지도의 각 방면에서 참으로 괄목할 만한 전진과 비약을 이루었다.

민족의 최고 두뇌이시고, 민의의 최고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통일혁명당이 한국민중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오늘날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조직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을 확고히 결집하고, 지하와 산중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10년 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확고하게 하고,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여 대중운동과 투쟁을 지도하는 곤란하기는 하지만 힘찬 투쟁의 과정에서 통일혁명당은 어느면으로 보든지 남못지 않은 한국혁명의 믿음직스러운 지도적 역량으로 단련되었고,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성을 계발하는 강력한 혁명의 전위대로 성장했다.

통일혁명당은 당의 지도이념인 위대한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전당 대오의 일사불란한 사상의지 및 행동통일와 단결을 완수하고, 중앙지도부로부터 각급 당위원회와 말단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지하 당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당은 당건설과 대중지도에 있어서 관건적인 요점이 되는 **김일성**주의의 선전을 각별히 주용시하고 항상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제기하였고, 당내 교육과 대중계몽에서도 **김일성**주의 선전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사상·이론·활동의 전반을 주체의 원리로 관철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선포하고 위대한 수령님이 처음으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것을 당의 최고 사명으로 확정한 우리 통일혁명당만이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중책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지도부는 적의 파쇼적 탄압선풍 때문에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당 기관지 ≪혁명전선≫을 1970년에 복간하고 1970년 6월부터는 ≪통일혁명당의 소리≫방송을 개시하였다.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유례없는 가혹한 상황속에서도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김일성**주의 선전을 위한 지하출판활동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덕성(德性)전기 ≪자애로우시고 깊으신 태양≫과 일화집 ≪절세의 위인≫, 단행본 ≪**김일성**주의원리≫와 ≪**김일성**주의혁명론≫은 우리 당 출판 활동의 귀중한 성과의 일부이다.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혁명이론에 입각하여 통일혁명당의 당면 투쟁강령을 작성·제시하고 각각의 국면에 있어 주·객관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방향을 명시하는 정치문헌을 발표했다. 이것과 함께 당은 ≪한국노동운동백서≫와 ≪한국인권문제백서≫, ≪한국경제백서≫, ≪한국식량문제백서≫, ≪대미뇌물제공행위백서≫와 ≪한일유착백서≫ 등 일련의 백서를 국내외에 발표하고 박정희일당의 반동적·매국적인 범죄행위를 전세계에 고발하는 정치노선을 다면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의 이같은 정치활동은 각계각층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민주구국항전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는데 실로 커다란 기여를 했다.

통일혁명당은 당 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대중속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확고히 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여 갔고 당면한 반파쇼민주화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였다. 투쟁의 불꽃속에서 탄생한 통일혁명당은 투쟁의 폭풍속에서 성장했다.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끈기있게 전개되어 온 반파쇼민주화투쟁은 통일혁명당이 명확하게 내세웠던 대중운동과 투쟁에 관한 방침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섬과 동시에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면서 더욱더 심화 발전하였다. 또한 투쟁의 성격과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되었고 조직적·대중적인 통일행동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가일층 현저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자, 농민의 투쟁이 차례차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고, 파쇼주구들의 탄압의 화살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이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 4·19의거 10주년에 즈음하여 서울대, 고려대를 위시하여 서울시내 각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던 백서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학원중심, 또 간헐적인 문제중심의 운동으로부터 탈피하여 대중운동에 장기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그의 형식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서 민족운동, 민생운동, 민권운동을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실천에 있어서도 1970년 71월 평화시장의 애국적 노동청년 전 태일 군이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결성 자유를 요구하면서 분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투쟁에 청년학생이 연대투쟁으로 응하면서 조직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역도가 남북대화막후에서 5·16쿠데타 10년째에 재차 강행했던 유신정변 이후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매국적인 유신파쇼독재에 반대하는 전 민중적 항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격화되고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반유신투쟁은 근로민중과 청년학생 만이 아닌 언론계와 학계, 정계와 종교계를 망라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75년 5월 극악한 파쇼악법체제 조차도 초월한 준전시상

태의 무법 불법사태를 만들어낸 악명높은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이후에도 민주구국항쟁은 한국전역에서 각 계층, 각 당파를 망라하여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개되었다. 오늘날 반파쇼민주화투쟁은 그 목적지향성과조직화의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전례없는 대중성과 완강성을 과시하면서 유신파쇼의 아성에 돌파구를 열고 있다. 대중운동이 의식화, 조직화됨에 따라 휴전이후 처음으로 대중적인 반미 기운이 일어났으며 친미적 성향을 가졌던 재야와 보수정치가마저도 이에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79년 여름 빈사의 위기에 처한 박정권을 구해내기위한 카터의 한국방문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대중적인 항의운동은 이와같은 반미추세를 웅변적으로 확증하는 명백한 실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명확하게 밝히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이론, 전략전술과 지도방법은 통일혁명당 건설과 한국혁명운동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민중은 과거 10년 간의 실생활과 투쟁경험을 통하여, ≪오로지 **김일성**주의만이 한국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완벽한 지도적 지침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절대적인 신념을 심득하고, 어떠한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결코 동요함이 없이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생명을 걸고 지키며, 위대한 수령에 자자손손 영구히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3

민족의 태양이시고,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서 높이 받들고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의 깃발을 하늘높이 날리며 주체사상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길을 따라서 일로매진하는 한 통일혁명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반공소동과 파쇼폭압의 광풍과 눈보라가 아무리 세차게 휘몰아쳐도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험산고령을 넘어 한국혁명이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말리라는 확신에 차있다.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심점이시고, 민족해방의 구원의 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앞길은 전과 다름없이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적의 몸부림도 어떠한 간난신고(艱難辛苦)도, 자기 위업의 올바름을 확신하고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우뚝 선 남조선 혁명가와 애국적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읍니다.≫**

통일혁명의 전진도상에는 평탄한 길 뿐만 아니라 험난한 길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그의 주구인 국내반동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가장 흉악한 식민지군사파쇼지배를 한국 전역에 실시하고 있다. 미일제국주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신파쇼독재는 소위 유신헌법을 축으로 하여 반공댑,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위법, 사회안전법을 위시하여, 세계 법제사상 그 유례가 없는 극단적 파쇼악법체제를 만들어 놓고, 중앙정보부를 위시하여 각종 폭압기구를 무제한으로 늘려 세계 최고의 밀도를 가진 거대한 폭압망을 형성하였다.

파쇼주구들은, 이 파쇼적 법률체제와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매일 시시각각으로 유혈로써 민중을 탄압하고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각종비상사태와 긴급조치를 연발하여 항상적인 준전시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순간, 어떤 대상이라도 총칼로써 유린하고 있다. 날로 강화·발전하는 통일혁명당의 위력에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파쇼 흡혈귀들은 지하당조직을 적발하여 지하혁명가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우기 가관인 것은 박정권이 혁명가와 애국자를 탄압, 학살하는 구실을 붙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는 비열한 정치모략까지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창당 이후 적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1969년 10월 경기도 지구당사건, 1971년 호남지구당사건과 1979년 충남지구당 사건을 비롯 통일혁명당조직을 파괴하고 당원을 투옥, 학살한 만행은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고난에 찬 10년 동안 통일혁명당의 수백 명의 당원이 파쇼주구들 손에 의해 체포·투옥되었고 성스러운 통일혁명의 길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그러나 적의 어떠한 야수적 탄압과 학살만행도 결단코 통일혁명의 위업을 좌절시킬 수 없었고, 통일혁명당을 굴복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없었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뼈아픈 희생을 치를 때의 비장한 슬픔을 용기로 바꾸었으며, 적을 기필코 격멸시키겠다는 투지를 더욱 굳히고 기세도 높게 용감하게 나아갔다. 파쇼폭압광풍이 거칠게 불어대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통일혁명당의 지도중핵과 당원들이 필승의 신념을 잃지 알고 어떠한 회생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백전백승의 깃발인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그들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춰 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굳게 정신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올바름을 확신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혁명가들은 금후에도 영광에 찬 통일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겨누며 생명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깊게 연구체득하고, 이를 광범한 민중 속에 넓게 보급·전파하여 **김일성**주의 혁명이론과 전략전술, 지도방법을 한국혁명의 실천투쟁에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 바로 여기에 모든 승리의 결정적인 뒷받침이 있다.

통일혁명당은 전당과 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이고,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 아래 당건설과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갈 것이다.

현 단계의 절박한 급무는,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파쇼화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혁명당은 반파쇼민주화를 현 시기의 총괄적인 슬로건으로, 기본투쟁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민족지상의 과제이고 우리 시대의 혁명가와 애국자들이 5천년 민족사의 앞에 짊어진 성스러운 임무이다. 통일혁명당은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수임을 자부하고 있다. 당은 내외 분열주의자의 ≪두 개의 한국≫음모를 분쇄하고, 남북대화와 합작을 실현하고 위대한 수령이 명확하게 밝혀 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반드시 부과된 중임을 완수할 것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강력하게 전개시키는 항쟁의 대오, 지축을 뒤흔드는 대진군의 선두에는 한국혁명의 전위인 통일혁명당이 확실하게 서있다.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지도사상, 완성된 혁명이론, 완벽한 지도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비방 · 중상하는 박정희일당의 책동 규탄

통일혁명당

통일혁명당 대변인 담화

지금 박 정회 일파는 우리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이북과 연결시켜 ≪흑색방송≫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당을 비방 · 중상하는 일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온 겨레가 범국민적인 통일대화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는 때에 박정권이 언론을 발동하여 한국민의 전위대를 헐뜯고 있는 데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우리 당과 방송에 대한 박독재정권의 터무니없는 비방 · 중상은 이북의 4개항목의 통일제안과 거듭되는 평화통일제의에 말문이 막혀 궁지에 몰린 데로부터 비롯된 비열한 행위이다.

이것은 마치 도회지에서 뺨을 맞고 시골에 와서 역정을 내는 격이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박독재정권이 인정하든 말든 엄연히 한국에서 출현하고 한국에 존재하며 한국의 애국민중과 함께 있는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근로대중의 참다운 전위대이다.

우리 당은 지난 10여년 간 유례없는 파쇼의 중압과 중첩되는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한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 ·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불굴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오늘도 우리의 당원들은 경향각지의 지하와 옥중에서 민중과 더불어 민중의 지향을 실현코자 간고분투하고 있다.

우리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도 투쟁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 · 강화되는 우리당과 함께 전진해 온 우리 당의 목소리로서 불의와 사악과 유신독재를 고발하고 통일혁명의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는 정의와 진리의 전파자이며 혁명과 투쟁의 선도자이다.

우리 당과 우리 방송의 존재는 한국에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이 있고 민의가 있으며, 파쇼와 분열을 강요하는 외세가 있고 매국이 있는 한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 당과 방송은 민족사의 요청과 혁명의 필연에 따라 출현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을 안고 매진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한국에서 민족과 민중과 함께 숨쉬고 있으며 우리 당의 걸음걸음에는 정의와 애국의 숭고한 뜻이 스며 있다.

그럼에도 박독재정권은 우리 당에 탄압의 예봉을 돌리고 우리 당의 존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통일혁명당사건에 관련시켜 우리 당 서울시위원회위원장이였던 김종태동지와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우리 당의 지방책임자들과 일부 지도성원들을 구속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당에 대한 박독재정권의 이러한 탄압행위는 그것이 애국에 도전하는 매국이며 민주에 역행하는 파쇼이며 통일에 반역하는 분열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여 줄 뿐이다.

어째서 집권자들은 다음대로 공화당을 조직하고 확대하면서 독주하고 전횡을 부려도 합법으로 되고 우리는 기백만 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 · 옹호하는 당을 만들고 활동하여도 비법으로 되어야 하며 지하에서마저 항시 탄압의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 통일혁명당은 한국의 착취받고 억압받는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이익을 대표하지만 박정희 반동정권과 민주공화당은 부패한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박독재정권이 민의의 참된 대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압살하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부득이 그들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하에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과 박정희 일파간의 관계는 결코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한국 내부문제이다.

우리는 이 땅에 국민대중을 등진 박 정회 파쇼정권이 존재하고 그의 반민중적인 파쇼매국분열정책이 계속되는 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결사항전을 그만둘 수 없으며 방송전파를 멈출 수 없다.

집권자들이 우리 당을 부인하고 우리 당에 대한 탄압과 비방 중상을 계속하는 것은 범국민적 통일대화를 진행하려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도전이며 대화와 통일을 운운하는 그들의 언행과도 배치되는 배신행위이다.

박정희 일파가 우리 당과 방송을 계속 비방 · 중상하면 할수록 그들은 국민의 더욱 큰 증오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에 유신체제를 존속시키고 유신감옥에 혁명가, 애국자들을 구속하면서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진심에서 하는 소리라 할 수 없다.

위정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한국사회를 민주화해야하며 우리 당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우리 당과 방송에 대한 비방 · 중상을 철회하여야 하며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적 정당, 단체들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박정희 일파가 우리 당에 대한 탄압과 모략을 아무리 자행하여도 우리는 굴함없이 전진하고 우리의 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우며 우리는 필승할 것이다.

1979년 2월 27일 서울

구국의 소리 방송과 한민전의 실재 시비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제4절 한민전과 공식선전매체인 방송

한민전의 활동과 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민전의 공식선전매체인 ≪구국의 소리≫방송이다. 한민전은 매일 아침, 낮, 저녁 3회에 걸쳐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지침과 투쟁방향 등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 ≪구국의 소리≫방송은 현재까지도 그 자체로서 남한내에 한민전이 실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시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구국의 소리≫방송의 전파발신지가 이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민전을 실재하지 않는 유령단체라고 몰아붙이고 ≪구국의 소리≫방송은 이북의 조선노동당이 대남적색선전을 하기위해 만든 흑색비방방송이라 주장해 왔다. 정부당국은 송신소의 위치를 북위 몇도, 몇분, 몇초, 동경 몇도, 몇분, 몇초라고 자신있게 밝히며 남한에서의 한민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계속해서 송신소가 파괴되지 않고 방송이 안정되게 계속되는 것을 보면 송신소는 이북에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정부당국이 밝힌 ≪구국의 소리≫방송의 송신소 위치는 평양 · 원산 · 해주 등지이다.

정부 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민전이 이제까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국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채록한 것으로 알려진 ≪새세대≫등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한민전은 그 실재를 부정하는 정부당국의 근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명확하게 해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 당시 박정희 정권이 ≪통일혁명당 목소리 (≪구국의 소리≫방송의 전신)를 ≪흑색방송≫이라고 비난하며 통혁당은 남한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령단체라고 주장하자 통혁당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통일혁명당은 박독재정권이 인정하든 말든 엄연히 한국에서 출현하고 한국에 존재하며 한국의 애국민중과 함께 있는, 한국의 피압박 · 피착취 근로대중의 참다운 전위대≫라며 ≪우리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은 투쟁속에서 태어나고 성장, 강화하는 우리 당과 함께 전진해 온 우리 당의 목소리로서 불의와 사악과 유신독재를 고발하고 통일혁명의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는 정의와 진리의 전파자이며 혁명과 투쟁의 선도자≫라고 밝혔다.*
(* 편집부 엮음 ≪통혁당≫, 대동, 1989. 226쪽)

또한 1985년 7월 27일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전화하고 동년 8월 8일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이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된 후에도 한민전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은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부대인 한민전의 마이크이고 전체 애국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자이다.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은 파쑈적 폭압이 난무하는 암흑지대에서 신음하는 민중에게 여명의 종소리, 정의의 종소리를 울려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이 지하에서 피로써 내보내는 한국민중 자신의 소리이다≫라고 하면서 공식선전매체인 ≪구국의 소리≫방송이 이북의 선전매체가 아닌 ≪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자신들의 방송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는 관계없이 정부 당국이 ≪구국의 소리≫방송을 이북의 선전용 방송이라고 규정함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구국의 소리≫방송이 남한내에서 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방해전파를 쏘아올리고 있다.

남한내에서 한민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당국이 한민전을 유령단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구국의 소리≫방송의 송신소가 이북에 있다는 점 밖에 없으며 그것은 한민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로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이스크라≫지가 러시아 국외에서 발간되어 국내로 반입되었듯이 송신소가 이북에 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방송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뿐이라는 견해이며, ≪구국의 소리≫방송을 니카라과의 전위조직인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이 소유했던 ≪라디오 산디노≫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구국의 소리≫방송이 이북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민전을 조선노동당이 조작한 유령단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러시아의 당기관지≪이스크라≫가 러시아에서 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을 인쇄소가 있는 나라의 괴뢰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민전의 활동과 애국적 전위대의 위상을 인정하는 측에서는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NLF)의 방송국이 북베트남에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좋은 예로 든다. 한국 사회처럼 정보기관의 감시망이 3중 4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지침과 투쟁방향을 알리는 송신소를 남한내에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송이 짓≫이며, 송신소의 위치 여부가 방송을 주도하는 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문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둘째로, 한민전을 노동당의 무슨 선전용 기구로 생각하는 점이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한민전은 북한의 몇몇 사람을 모아놓은 이북 당국의 관제선전용조직에 불과할 것이고, ≪구국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 ≪한민전 성원 여러분≫, ≪한국민중의 애국적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위조직≫ 등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 되고…… 한민전과 연대하여 집회를 여는 많은 진보적 나라들의 당은 순진하게 속아주는 머저리이며, 한민전 대표부를 설치한 쿠바는 국제적 사기극의 속죄양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구국의 소리에 대하여도 잘못된 표상이 있다. 구국의 소리의 송신소 위치가 휴전선 이북인 것은 분명하다. 서울이라면 금방 방송국이 찬탈당할 것이다.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북 어딘가에 있을 것같다. 그런데 이 점을 두고 한민전이 한국내 조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국도 일종의 근거지에 기반을 두며, 이러한 근거지는 그 사업 수행상에 안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항일혁명의 시기에 근거지는 만주에 있었던 것이나, 베트남NLF의 방송국이 베트남 인민공화국에 있었던 것이나 원리는 다 마찬가지다.

송신소의 위치가 이북이기 때문에 위장 선전방송이라는 이야기는 미제와 그 주구놈들이 상투적으로 왜곡비방하는 내용이다. 순진하게도 그러한 선전에 놀아나는 소위 운동인자가 있다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 내용과 같으며 자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전의 기치 아래 단결하여 투쟁하자!≫, ≪한민전 정책노선 자료≫ (87.9~88.6))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구국의 소리 방송의 송신소가 이북에 있기 때문에 한민전은 북한이 만들어 놓은 유령단체라는 당국의 주장은 점점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반대로 한민전이 남한내에서 실재하는 조직이며 구국의 소리 방송은 전위조직인 한민전의 공식 선전매체라는 주장은 계속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안기관에 의해 발표된 ≪자민통 사건≫의 경우, 정부 당국은 이제까지 언급을 금기시했던 한민전을 자민통조직의 배후라고 밝혀 간접적으로나마 한민전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의 송신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한민전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방송 내용의 구체성과 정확성이다. 연전(年前) ≪일요신문≫은 ≪남한에 지하당은 존재하는가≫라는 특집기사를 다루었는데 당시 지하당(=한민전)에 대한 재야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되었다. 첫째는 구국의 소리 방송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하당이 남한내에서 전위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방송은 불가능하며, 그러기에 지하당은 분명 남한내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 사회는 ≪닫혀 있는≫ 사회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방된 ≪열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 남한 사회의 정보를 입수하여 방송할 수 있고 따라서 구국의 소리 방송만으로 남한내에 지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세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하당에 대한 입장의 결정을 보류하는 부분이었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보도 내용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체성과 정확성이 단지 남한 사회가 국제적으로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민전의 존재를 믿는 측에서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측 방송이고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 내의 정보를 입수하여 자체 편집, ≪편성하여 방송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외국(특히 일본)을 통해 남한의 신문이나 방송, 기사 등을 모으거나 직접 남한의 TV 라디오 등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편집, 편성하여방송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사건 발생 후 방송이 나오기까지 2~3일간의 시차가 있어야 당연하나, 실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 보도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남한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나 집회시 ≪시간적 차이≫없이 그때 그때 생생한 현장감까지 곁들여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외국이나 전파매체 수신을 통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한민전의 지하 성원이 남한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보다 더 비중있게 제시하는 것으로, ≪열려 있는≫ 사회라는 점만으로 불가능한 ≪구체성≫이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에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남한 내의 여러 정보들을 2차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이정보는 1차 수집자 (주로 정부 당국, 언론기관)에 의해 한번 걸러진 것임이 분명한 데도 2차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할 수 있으리라 믿기지 않는 상황의 설명이나 정보들도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X일 ㅅ대학 0동 건물에는 전지 크기의 0장의 대자보에······≫ 등의 보도 (*≪정책자료집≫)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예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 · 분석해 보아 구국의 소리 방송의 송신소 위치에 대한 현실적 분석과 내용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기초한 해명들이 모두 한민전의 실재를 증명하는 실제적 근거로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고 했을 때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구국의 소리 방송이 과연 남한 변혁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할 만큼 타당한 정책지침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실천적 측면이다. 이 문제는 3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겠지만 현재 남한변혁운동의 대오내에서 한민전의 지도를 인정하고, 그 실천적 형식으로서 방송 내용을 지침으로 삼는 대열들이 폭넓은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안당국이나 민족민주운동권 내에서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 청취와 결합하여 항상적으로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방송 내용을 문건화하여 배포하는 작업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한다. *

*그 이전 시기에도 방송의 청취는 대단히 은밀하게 소수 써클내에서 이루어졌었다. ≪남민전≫ 등 70년대 사건외에도 85년이후의 강철(김영환씨), ≪반제동맹당≫사건(86. 11발표),≪ML주의당≫결성기도사건(86. 10), ≪남노련≫사건(87.5) 등의 관련자들이 방송을 청취해왔던 것으로 수사발표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88년 이후 공안기관의 집중적인 주목과 탄압 속에서도 ≪구국의 길≫,≪자주언론 (혁신)≫, ≪애국≫, ≪새날≫, ≪자주민주통일≫, ≪구국의 광장≫, ≪새세대≫, ≪구국의 횃불≫ 등이 꾸준히 운동대오내에 제작, 배포되고 있으며, 단체명의로도 반제청년동맹의 ≪주체기치≫, 민족해방학생동맹 준비위원회의 ≪횃불≫등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91년부터 활발하게 제작 배포되고 있다고하는 ≪구국의 횃불≫의 경우 그 발간사에서 한민전의 공식적 정책 발표인 구국의 소리방송의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작, 배포하는데 편집진의 사회정치적 생명까지 걸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운동대오 내에서 구국의 소리 방송의 내용이 문건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한민전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민전은 1991년의 민중운동의 향방에 대한 구국의 소리 방송의 대담시간에 1990년의 투쟁을 평가하며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사이에서 이북 원전과 구국의 소리 방송의 채록물들을 교재로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들며 이를 긍정적인 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녹취하여 제작 배포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점 자체 또한 자연발생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며 한민전의 목적의식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일부 그룹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던 방송청취가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전화한 1985년 이후 대규모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운동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흐름의 변화나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전국적이며 급격하였고, 일회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국학생연맹 중앙위원을 지낸 한 사회운동가는 ≪말≫지와의 대담에서 ≪85년에 한민전이 남한의 변혁운동을 민족해방노선으로 못박으면서 출범한 것과 그 무렵부터의 대중적 반미투쟁의

전개, 자주·민주·통일 이념의 확산을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구국학생연맹의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방송을 통해 전파된 한민전의 정책에 동의했다.≫며 한민전의 ≪내용적 지도≫를 수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이 운동권내에서 대대적으로 청취되고 그 지도성의 관철이 심화된 것은 87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일로 보여진다. 6 29선언 이후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격변하는 정세에 운동조직들이 갈팡질팡하고 각 정파간 노선대립이 첨예화되며, 일부 그룹들이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전위적 수준과 자격에 미달했음이 검증된데 반해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제시된 한민전의 정책 지침은 남한변혁운동의 기본원칙과 전략적 관점을 확고히 견지했다는 평가가 대두되면서 방송청취 열기가 대폭 확산되었던 것이다. 변혁운동의 전과정에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지도적 위치로 부상하는 것은 그 집단이나 조직의 정책과 투쟁방향이 얼마나 올바른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올바른 정책, 투쟁방향,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상·조직적 지도부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며 대중의 굳은 신뢰와 지지를 획득한다.

세계 어느 나라의 혁명운동을 보더라도 자기 나라의 변혁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하려는 혁명가들이나 변혁운동의 과제에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대다수 민중들은 언변만이 뛰어나고, 자신의 지위나 일신의 영화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조직에는 자신의 지지를 보내지 않으며 항상 민중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민중을 인도하며 변혁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집단이나 조직에는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굳은 신뢰 속에서 힘을 모아가게 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는 일단 뒤로 넘긴다 하더라도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고 그 지도성을 인정하며 따르는 대열들이 계속하여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외형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민전이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지침과 투쟁방향이 현실적 힘과 권위를 갖고 변혁운동대오안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찬반을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민전이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일정정도(혹은 광범위한)의 지도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보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운동대오 내에서는 그 실천적 적용을 둘러싸고 몇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는 지도내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술적 운용의 차이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먼저 이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자료의 주장을 살펴보자. 아직까지 다른 어떤 비합법 운동세력도 자체의 라디오 방송매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민전 방송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운동대오 일각에서는 자신의 활동 기반의 조건과 처지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수립과 다양한 선전선동·투쟁전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한민전의 정책지침으로 간단하게 운동의 향방을 결정해버리는 좋지않은 편향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한다할지라도 결코 바랑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편향과 더불어 한민전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한민전의 정책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사상경향을 유포하는 편향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한민전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투쟁의 대중화를 ≪대중 추수주의≫로 전락시켜 활동가와 핵심골간들이 대중과 밀접히 결합하여 대중투쟁을 추동해내야 한다는 점을 활동가와 핵심골간들의 활동을 비조직 대중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평준화시켜야 한다고 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활동 수행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편향들은 무수히 존재해왔다),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왜곡하여, 반합법·비합법활동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조직패배주의에 빠진 자신의 교묘한 핑계거리로 삼는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대한 운동대오 일각의 편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일정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혁명발전의 현조건은 우리 혁명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몇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두리에 더욱 광범한 대중을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다. 자신의 종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연히 주체사상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반대, 배격하든가 아니면 은연중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고, 이러한 사상경향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정열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타협적이고 유화적인, 사상투쟁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권위가 이용되어 ≪산개주의≫, ≪계급협조주의≫, ≪대중 추수주의≫ 등 온갖 잘못된 사상경향들이 유포되었고, 이들 잘못된 사상경향들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노선 사이에 아직 뚜렷한 선이 그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권위를 이용하여 내리먹이는 식의 낡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이 아직도 광범하게 남아있으여, 한국민족민주전선을 핑계로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창조적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사업하려 하지 않고 생각과 활동을 게을리하고 모든 일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매우많다. 이 모든 것이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결집시키고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를 대중의 혁명투쟁에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주체기치 1호≫, 창간사, 반제청년동맹)

어떤 정당이든 원칙적으로 당원은 당 중앙위원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되어 있으나, 전위조직원이 아닌 활동가에게 무조건인 복종은 전위조직 지도력의 현실적인 관철방식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활동가가 자신의 머리로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전위조직이 제시한 정책이 현실과 투쟁과제에 올바른 지침이 되는가를 늘 검증하고 매 시기의 투쟁을 평가, 총화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 나갈 때 비로소 그 활동가에게 전위조직의 유일영도성이 관철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정책과 투쟁노선의 생활력도 강한 법이다. 자주적이지 않은 지도의 수용은 주관적(주체적이 아닌) 실천으로 귀결될 위험이 많고 한민전이 강조하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을 통해 한민전의 정책지침을 수용하는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이 지침을 통해 각각의 투쟁단계가 운동의 전략전술적 과제에 비추어 어떠한 의의를 지리는가를 확인하면서 각자 자기단위의 구체적이고 자립·자활적인 투쟁방도를 창조적으로 생산해내고, 아·타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정책지침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대원칙에 입각한 실천적인 투쟁지침을 자체로 응용하여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자체 비판의 초점이라 생각된다.

구국의 소리 방송의 역사, 위상, 내용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제4절 한민전과 공식선전매체인 방송

(1) 방송의 역사와 위상

구국의 소리 방송의 역사는 통일혁명당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통일혁명당은 1968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창당 준비단계에서 서울시 준비위원회와 전라도 위원회가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한민전은 1965년 3월15일 창당 준비위원회를 거쳐 1968년의 대탄압의 난관과 시련을 뚫고 다음해인 1969년 8월 25일 전일적인 통일혁명당이 창당되었다고 밝힌다. 그리고1970년 2월 통일혁명당의 12대 강령을 지하에서부터 발표하였으며 창당준비시절 탄압에 직면하여 일시 중단하였던 (혁명전선)을 복간하고 6월 1일부터는 현 구국의 소리 방송의 전신인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편집부 엮음, ≪통혁당≫, 대동)

당시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은 방송시간도 지금에 비해 무척 짧았으며 주파수도 중파 1135KHZ, 단파 4,550MHZ, 두 채널밖에 없었다고 알려진다. 통일혁명당 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에는 이 점에 대해 ≪통일혁명당 중앙지도부는 적의 파쑈적 탄압선풍때문에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당기관지 (혁명전선)을 70년에 복간하고 70년 6월 1일부터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개시하였다.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유례없는 가혹한 상황에서도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김일성**주의 선전을 위한 지하출판활동을 계속하여 발전시켜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편집부


…과 그 주구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며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고야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고 김종태동지의 추도회가 엄숙히 거…

엮음, ≪통혁당≫, 대동, 1909.)

1985년 통일혁명당이 시대의 추세와 변혁운동의 발전에 따라 한민전으로 전화한 후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도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칭되었다. 현재구국의 소리 방송은 중파 1053KHz, 단파 3.480MHz, 4.450 MHz 4.557MHz 등 다양한 주파수 밴드로 매일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방송되고 있으며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단파 4.120MHz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6.010MHz로도 방송되고 있다. 구국의 소리 낮 방송과 아침 방송은 저녁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편성해 방송하고 있으며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구국의 소리 영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정책자료집≫)

구국의 소리 방송의 위상을 놓고 한민전 성원용 방송이냐, 대중용 선전매체냐 하는 점을 명확히 하자면 구국의 소리 방송은 대중용 선전매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한민전은 90년 의식화 사업을 평가하며 한민전 성원을 정치사상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서울시위원회와 경상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도위원회에서 원전을 프린트해서 조직성원들에게 배포했는가 하면, 주체사상에 관한 주요 명제 발제본도 만들어 학습에 활용하여 한민전의 조직성원들을 사상적으로 정신무장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밝히며, 이와 함에 각계 민중들을 의식화하는 데도 전심전력을 다했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대중의식화의 유력하고 힘있는 수단은 구국의 소리 방송과 ≪구국전선≫신문이었다고 한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각계 민중들에게 주체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한 것은 90년 한민전이 거둔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놓고 볼 때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민전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대중용 선전매체임이 분명하며 한민전의 지도를 인정하는 운동대오에서도 방송의 내용상 구국의 소리 방송을 대중용(물론 선진 활동가 대중을 포함한)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방송 내용의 4대 구성요소

구국의 소리 방송은 방송을 통한 자기의 사명을 i) 지도사상의 보급 ii) 한국사회의 제모순과 부정을 폭로 iii) 각계 민중들의 투쟁 소식을 내외에 전파 iv) 전략전술 선전을 강화하여 투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자주 · 민주 · 통일의 여명을 알리는 주체의 전파≫, 구국의 소리 20주년 기념방송, 이하≪주체의 전파≫,

먼저 지도사상을 보급 전파하는데 있어 구국의 소리 방송은 지도사상의 원리와 이론을 깊이있게 해설하여 각계 민중이 주체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정립하고 그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 반미자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주체사상 강좌나 노작의 해설이 항상 중심적인 방송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국의 소리 방송이 지도사상의 보급 전파에 가장 선차적인 힘을 쏟는 이유는 한민전이 민족,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회변

혁운동에서 지도이념 문제는 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을 세우는데 있어 남의 나라 경험이나 기성이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사대적으로 섬기는 풍토가 성행하는 한, 현실의 여러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변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고 한민전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요구, 우리 민족·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우리의 헌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올바른 지도사상을 확립하고 보급 전파하는 것≫*(*≪정책자료집≫)을 그만큼 중요한 일로 삼는 것이다.

지도사상을 보급 전파하는데 있어 방송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원전을 강독하고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활≫, ≪참다운 생활≫, ≪그릇된 생명론≫ 같은 제목아래 인생론 강좌를 통해 지도사상의 내용을 삶의 모습에 투영하여 친근한 설명을 유도하기도 한다.≫**(**≪정책자료집≫)



여기에 변혁운동상의 여러 이론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작업도 곁들인다.

예를 들어 87년에서 88년사이에 세련되게 정식화된 주체민족해방이론에 따른 NLPDR론이라든가 한국사회성격론으로서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론, 그리고 최근 운동대오내에서 정식화되었거나 정식화되고 있는 현대제국주의론에 대한 주체적 견해나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사이의 상호 관련성 등에 관한 해명은 실제로 구국의 소리 방송에 그 학문적 도움을 받은 바가 지대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방송에서는 모잠비크, 이란, 니카라과 등 제3세계혁명운동에 대한 소개도 하며 타국의 혁명과정에서 유용하고 배워야하는 경험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다음으로 ≪적법이 없는 식민지 한국사회의 제모순과 부정을 예리한 목소리로 파헤쳐 민중의 심장을 각성시키고 민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줌으로써 타도되어야 할 대상들을 헤어나을 수 없는 정치적 궁지와 수세에 몰아넣는 것≫(≪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주요사명으로 잡고 있다.

한반도내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과 정권의 독재정치 등을 규탄하고 끝없이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빈궁을 강요받는 민중들의 생활상을 폭로한다는 방송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핵전쟁 위험 가중시키는 팀스피리트 훈련≫, ≪주한미군 철수론의 겉과 속≫, ≪전노협 단병호 의장을 불법연행해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이철규군 고문변사사건의 진상 공개≫,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상≫ 등의 제목으로 대담, 시사해설 시간에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규탄, 한민족을 몇번이나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폭로와 즉각 철거 요구, 고문치사, 인권유린 등에 대한 진상공개, 민중들의생활상의 곤궁등을 파헤친 내용이 자주 방송되고 있으며 가끔은 ≪한국인권탄압백서≫ 등의 형태로 한국사회내의 부정과 제모순들을 일괄요약하여 발표하기도 한다는 것을 ≪새세대≫ 등의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운동은 본질적으로 모두 의식적 운동이다는 관점에서 한민전은 수십년간 모순과 억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민중이 투쟁으로 바로 떨쳐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수십년간 가중된 모순과 억압만큼이나 민중들의 머리속에 부식된 관제언론과 제도교육을 통한 왜곡된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각계각층 민중들의 생활과 처지는 한국사회변혁을 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이해를 같이하나 의식의 왜곡이 투쟁으로의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일방적으로 세뇌된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격파하는 것은 사회변혁운동의 근본 출발점이며 그것을 밀고나가는 원동력이다.

민중들의 머리속에 남아 민중들을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낡고 왜곡된 사상잔재의 핵심은 숭미반북의식이다. 정권측은 수십년간 미국을 ≪은인의 나라≫, ≪자유세계의 수호자≫, ≪꿈의 나라≫로 선전하며 미국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매국행위와 같다는 등식을 민중들의 뇌수에 심어왔고, 대대적인 반공반북캠페인을 통해 한민족 구성의 절반인 북한을 ≪피와 학살과 기근의 적성 괴뢰집단≫으로 인식시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적개심을 강요해왔다. 지금도 지배권력이 통치의 위기상황에 몰리면 북방정책을 들먹이고 대북협상안을 제시하거나 북한의 남침위협설을 꺼내는 저의와, 90년대가 시작된 지금의 시점까지도 이러한 낡은 통치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지배권력이 해방이후 40여년간 민중의 머리속에 집요하게 심어놓은 ≪악성≫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제반의 사건과 현상에 대해 올바른 관점하에서 분석하고 폭로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방송내용의 주요구성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지배권력이 위기에 몰릴때마다 때맞추어 터지는 ≪북한의 테러≫ 같은 경우 한민전이 자체조사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진위를 밝히려고 한다. 87년 대통령선거 직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나 90년 3월 3일 정부측에 의해 발표된 제4땅굴 사건에 대한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의 진상공개장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소위 ≪북한의 테러≫에 의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반공반북캠페인이 벌어질때 사건에 대한 보도와 그 정황, 증거해설은 정권측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 운동대오가 그 진실에 대한 접근이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언론보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유일하게도 정권측의 발표에 대해 반대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은 많은 운동대오가 폭넓게 인정하는 사실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싸우는 각계 애국민중의 모습을 내외에 알려주고 민중속에 깊이 들어가 민중의 뜨거운 숨결과 맥박을 그대로 전하는≫ 사업을 자신의 주요한 사명으로 또한 잡고있다. ≪큰걸음으로 내디딘 빈민운동≫, ≪올해 선생님들 어떻게 싸웠나≫ 등으로 각계 각층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제때에 알리는 내용의 방송은 구국의 소리에서 언제나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운동대오내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구국의 소리 방송이 각계각층에서 투쟁하고 있는 대중들의 모습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비록 적은 분량이나마 이것외에 한민전 성원 자신들의 투쟁내용도 방송을 통해 보도한다.

물론 한민전이 자신을 전위조직으로 자리매김한 이상 한민전의 지하 비밀·비합법활동상황을 고스란히 보도할 리는 없고 그

러한 것을 바라는 것 자체는 무리다. 그러나 직접적 침탈의 위협이 없는 대외활동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한민전의 활동을 밝히는 편이며, 세상에 일정정도 알려진 통혁당 창건준비단계에서의 활동상황은 정부기관에서의 발표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활동내용을 밝히고 있다. 지하활동도 최근에는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민전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송의논조가 잡히고 있다. 이러한 방송내용은 한민전의 활동을 짐작하는 데에 큰일조를 하고있다. 한민전이 국내에서 벌이는 지하비밀활동에 대하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한 적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구국의 소리 방송이 한민전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민전 활동의 중심축인 국내 지하비밀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송은 ≪한민전 성원들이 ≪지하전투≫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식의 다소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민전 성원들의 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평가와 전망≫, 정책자료집의 일종)

구국의 소리 방송은 1990년 한민전의 활동 중 ≪정치선전사업≫부문을 돌이켜보는 자리에서 ≪아시는 것처럼 민주와 파쑈,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로 격돌했던 90년 이 해, 우리 한민전 성원들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과 함께 지하전투에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이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한민전은 자기 대오를 굳게 다져나갔고, 한국민중의 전위대로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지닌 중임을 유감없이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제한 다음 한민전의 정치선전활동을 소개했다. 소개된 주된 활동의 내용을 i) 한민전의 각급 조직들에서 조직성원들을 지도사상의 이념으로 정신무장시키고 지하출판을 시 · 도위원회에서 수행한 사실과 ii) 구국의 소리 방송과 ≪구국전선≫신문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고 투쟁방향을 제시하며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점 iii) 90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한국민중들을 분기시키는 데 한민전이 헌신분투했다는 점 iv) 대중운동의 방향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키고 v)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있어서 활발한 정치선전을 벌였다는 점 등이다.* (*≪평가와 전망≫, 정책자료집의 일종)

여기서 iii)의 조국통일투쟁에 대해서 한민전은 광범위한 민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고루하고 역사적인 8 · 15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으며 그와함께 조국통일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방제통일론, 남북간의 긴장상태 완화, 콘크리트장벽 해체와 자유왕래, 전면개방의 실현, 남북 각계 각층의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중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한다는 점을 민중속에 널리 해설하는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 90년의 ≪한국민중의 조국통일운동에서 한민전도 한 몫을 했다고 자부의 말씀을 드리고≫싶다며 다소 자신감있게 활동상황을 표현하는가 하면 v)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있어서는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우루파과이 라운드협상을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KBS 사원들이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투쟁 등 민주민권을 위해 싸우는 각계 민중의 편에서 그들을 고무하는 정치선전을 적극 벌여 투쟁실천을 통해 각계 민중들의 두터운 신뢰를 획득하였고 한민전은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대중속에 자기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릴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한민전이 90년에 ≪크게 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민전은 89년 하반기에도 자신들의 89년 활동상황을 소개하며 한민전은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조직건설과 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오가 보다 전투력을 갖춘 전위조직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고, 한민전의 대중적 지반은 한층 강화되었다는 내용 등을 방송을 통해 주장하였다.

한민전은 1990년 8월 결성 21주년을 맞이하여 한민전 성원이 직접 쓴 듯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8월의 아침에 (생략)

구국의 소리 방송이 한민전의 국내 지하비밀활동에 대해서는 간접적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 침탈의 위험이 없는 해외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방송이 주장하는바 한민전의 해외활동은 통혁당시대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측에서 발간하는 ≪북한총람≫을 들추어봐도 과거 통혁당이 해외에서 벌인 활동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것으로 나타나있다. 물론 정부측 자료에는 이러한 활동이 모두 남한내에 통혁당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북한측의 위장전술이라는 해석이 곁들여 있다. 그러나 한민전의 존재와 지도를 인정하는 운동대오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한민전이 국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상 쿠바같은 국가 등이 한낱 위장단체에 불과한 한민전의 대표부를 수십 년간 인정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이는 증거로 1968년 통혁당사건 이후 통혁당이 적발된 마지막 사건인 79년 ≪삼척 통혁당사건≫에 이르기까지 검거된 ≪통혁당원≫중 소위남파간첩은 한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점을 든다. 한민전은 통혁당 시절부터 활발한 해외 연대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1978년 11월 9일 칠레국민과의 연대성 국제회의에 통혁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이 참가해 연설한 사실이나 1979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사실 등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월간 말≫. 1991.2)

한민전은 현재 평양대표부를 위시해서 일본, 쿠바, 시리아, 마다카스카르 등 세계 여러지역에 상설대표부를 두고 대외활동을 펴고 있다고한다.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전하는 최근의 대외활동으로는 89년 한민전이 중앙위원회 명의로 세계 각국의 공산당과 노동당, 사회당, 진보조직들의 창건일에 즈음해서 친선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고 11월 7일에는 각국 정부, 정당, 단체들에 편지를 보내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창설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중의 반전반핵운동에 적극 호응해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합쳐줄 것을 호소하여 ≪한민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쿠바신문 8월 25일 (한민전 창립일) 자는 한민전 결성의 의의를 설명하고 한민전은 오늘 미제와 친미독재에 공포를 주는 불패의 대오로 자라났다고 언급하며 한민전은 반미반독재 민족통일의 대업을 수행하는 선봉대라고 추켜세웠다고 한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민전이 90년에도 국제사회에서 벌어진 행사들에 참가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벌렸는데 몇가지 실례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나콰도르 과랴크시에서 진행된 ≪세계의 자주화와 민중의 진전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에 대표단이 참가한 사실과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에 의한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세계대회≫에 참가한 사실 이밖에도 2월 그리이스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행사와 회의들에 대표들이 참가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과랴크시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는 35개 나라와 5개 국제기구에서 40여개의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여기에서 한민전 대표단 남석길 단장이 직접 연설하였다는 것이며, 파리의 세계대회에서도 한민전 대표단장이 직접연설을 하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많은 외국대표들이 한민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민중의 반미 자주통일투쟁을 지지

하는 연설을 하여 덴마크의 조선친선협회위원장은 ≪한국에서 한민전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 조직들의 합법화를 당장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였고 페루국회의원이며 페루 아프나당 정치위원인 카를로스 로가트그리는 ≪자주 민주 · 통일을 위한 한민전과 한국민중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방송은 한민전과 한국민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성원도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10월 24일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위원회≫ 서기장 이뚜 브리쉬가 파리의 세계대회가 성과적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서 한민전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왔으며 8월 23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가 한민전 창립 21주년에 즈음하여 집회를 갖고 한국민중에 대한 굳은 연대를 표시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방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한민전의 해외활동은 이전의 통혁당시절보다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국의 소리는 마지막으로 ≪주체의 전략전술 전전을 강화하여 선각자들에게 투쟁의 양식을 주고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위시한 대중운동이 편차없이 승리의 지평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투쟁의 나침반이 될 것이며 투쟁의 광장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애국민중의 자주 · 민주 · 통일의 함성에 자기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 민중의 애국 대진군을 추동≫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자기와 주된 임무로 잡고 있다.

매년 1월 1일 중앙위원회 명의로 그 해의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신년메시지≫를 비롯하여 매시기 상황에 따라 발표하는 ≪전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당면투쟁구호≫ 각종 선언문이나 성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방송의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 배포하는 소위 ≪BC소조≫들이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부분이며 가장 신속하고 정력적으로 보급 · 배포되는 부분이다.

매시기마다 발표되는 한민전의 투쟁지침은 일관된 맥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 그 일관된 맥이란 민족해방노선의 견지다. 한민전은 1985년 통혁당에서 전화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노선을 민족해방운동으로 ≪재정립≫하고 그 수행을 위한 역량 조성에 모든 투쟁을 귀착시키고 있다. 민족해방노선은 변혁이론의 본성상 투쟁의 예봉을 외래침략세력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민전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사회성격에 기초를 둔 민족해방노선을 견지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중심축으로, 반파쑈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을 결합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족해방노선에서 당면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인 자주 · 민주 · 통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민전의 투쟁지침은 해당시기 특별한 강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반미, 반파쑈, 조국통일운동의 순서로 제시된다.

한민전이 1985년 한국사회변혁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재정립≫하게된 근거로는 80년의 광주민중항쟁을 든다. 한민전은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해 한국민중이 식민지통치의 배후조종자로서 미국의 정체를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항쟁을 계기로 한국민중의 반미 감정은 더욱 뿌리 내리게 되었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적 모순과 병폐의 근원이 미국의 지배에 있다는 대미의식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민족해방위업을 민중운동의 출발점으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70년대 같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반미투쟁의 공간을 확대해주는 시기를 벗어나 한국의 정세는 모든 민주애국세력을 망라하는 각계 각층이 반미자주화의 기치아래 민족해방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의의 애국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한민전 결성 21주년 특집논설)

이러한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당자체발전의 요구에 맞게 85년에 이미 전부터 전위조직으로 활동해오던 통혁당을 한민전으로 바꾸고 통혁당의 12대 강령을 한민전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새롭게 10대강령으로 제정하였다고 한다. 한민전의 10대강령은 민족해방노선의 견지하에 자주 · 민주 · 통일투쟁을 구체화한 것으로 민족해방혁명에서 쟁취할 기본강령으로서 한민전 자신이≫아직 완수하지 못했으나 기필코 한국민중의 힘으로 완수하겠다≫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당면목표이다. 이 10대강령은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전화할 무렵에 즈음한 85년 7월 27일 ≪한국민족자주선언≫의 제목으로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 주체의 전파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6월 1일

6월 1일은 구국의 소리 방송이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은 뜻깊은 개국일을 맞으며 그간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시고 험로역경을 함께 헤쳐오신 애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집단은 앞으로도 애청자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뜻깊은 개국일을 맞으며 굳게 결의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논설입니다.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 주체의 전파 ,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은 우리 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이 우주공간에 자기의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3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역사의 날을 맞으면서 본 방송편집국은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을 애청해주시고 각방으로 후원해주신 각계 애국민중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열렬한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1970년 6월 1일, 이 땅의 창공을 어지럽게 울리던 온갖 왜곡되고 반동적인 전파들을 밀어 던지며 참신하게 울려 퍼진 구국의 소리 방송의 첫 전파. 그것은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에 의해 억눌리고 짓밟힌 민중에게 자주와 민주, 통일의 여명을 알리는 주체의 타종이었고 민족민중의 원수, 역사의 반동들에게 파멸을 선고하는 준엄한 선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구국의 방송이 걸어 온 길은 다사다난했으나 투쟁의지가 솟구쳤던 행로였고 힘겹고 어려웠으나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영광찬 행로였습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정의와 진리의 전파를 날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는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투쟁의 길잡이로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친근한 동반자로서의 자기의 중임을 다하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편집국은 우선 온 세상 사람들이 자주시대의 태양,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민족의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거기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왔습니다.

오늘 각계민중들 속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는 본 방송 편집국의 이 같은 노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민의의 참다운 대변자, 철저한 옹호자로서 각계민중과 더불어 시련의 언덕을 함께 넘고 뼈를 깎는 아픔도 함께 나누며 준엄한 투쟁의 길도 함께 헤치면서 생사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편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이미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발표된 한민전 중앙위원회의 성명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문서들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이 정확한 투쟁의 진로를 찾고 필승의 신념과 자신감에 넘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었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파쇼독재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방송편집국은 지난 31년 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싸우는 우리 민중의 투쟁을 국제사회에 널리 소개선전하는데 응분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결과 우리 민중의 투쟁위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보하는 데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참으로 지난 31년 간 구국의 소리 방송이 걸어 온 길은 각계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대중운동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 영광찬 노정이었고 각계민중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실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보람찬 행로였습니다.

그러나 본 방송편집국이 걸어 온 길은 결코 순탄한 대로가 아니였습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의 거대한 영향력에 당황망조한 역대위정당국자들은 주체의 전파를 막아보려고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 했고 심지어 우리 방송 애청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 처형하는 파쇼적 폭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해책동과 파쇼폭압으로써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의 힘찬 목소리와 그 영향력을 막을 수도 멈춰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국의 소리 는 각계민중들로부터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신뢰를 받는 권위있는 방송으로 됐으며 청취자 대열은 날을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이에 대해 커다란 자긍심을 갖는 한편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앞으로도 우리 방송을 아껴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각계민중의 기대에 유감없이 보답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대중을 의식화 조

직화해서 대중운동의 주체를 마련하며 각계민중의 투쟁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선전조직자로서의 한민전의 위력한 선전매체인 구국의 소리 방송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책임적입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 방송편집국은 앞으로도 여명의 타종, 주체의 전파를 더욱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힘있게 온 만방에 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방송편집국은 온 겨레가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영수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민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는 위대성 선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선전을 기본과제로 제기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고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오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또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공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촉진하고 그들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최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걸맞게 각계민중을 미국의 대북강경책동, 조국통일방해책동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데 응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국의 소리 방송이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 민중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투쟁의 길잡이로서의 자기 사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 방송편집국은 각계민중여러분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을 더 많이 애청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리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애청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구국의 소리 방송은 그간 변화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에 걸맞게 편집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애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지만 아쉬운 점들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에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의 소리≫방송 개국 31주년을 축하하며

≪인터넷 구국의 소리≫

지난 6월 1일은 ≪구국의 소리≫방송이 주체의 첫 전파를 날린지 3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구국의 소리 애청자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집단에 열렬한 축하와 더불어 지난 30여년간 주체의 전파로서 중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한 귀 방송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애국적 전위대 한민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구국의 소리 애청자≫는 모든 운동가들과 각계민중에 ≪구국의 소리≫방송을 더욱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뜻깊은 ≪구국의 소리≫방송 개국일을 맞아 ≪구국의 소리 애청자≫는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결의다지며 아울러 더 많은 조직과 단위들에서도 ≪구국의 소리≫방송의 선전, 교양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구국의 소리≫방송의 개국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여러분.

방금 우리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의 역사적인 개국을 알리는 장엄한 첫 개주악을 전 세계에 울려 보냈습니다.

마냥 격동하기만 하는 감격적인 이 순간 우리는 매국악당을 박멸할 내일의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을 그려보며 지나온 투쟁의 험난했던 노정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한국혁명을 향도할 독자적인 혁명적 당을 창립하기 위해 우리 혁명동지들이 통일혁명당의 지방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

조직을 세우고 투쟁을 조직하는 지하혁명활동의 그 간고한 나날에 우리는 당의 견해를 대변하며 당의 의도를 신속 정확히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방송과 같은 유력한 대중선전수단을 가질 것을 얼마나 열망해왔던 것입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염원은 헌신적인 당원동지들의 피어린 투쟁과 전체 인민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의 결정으로써 오늘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단 ≪주체의 전파 그 자랑찬 행로－6월 1일≫의 일부)

주체의 전파 그 자랑찬 행로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6월 1일

양정아 : 안녕들 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고일철 : 안녕하세요.
양정아 : 6월 1일은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이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31해가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날을 맞아 방송편집국 집단은 우리 구국의 소리 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경청해오신 애청자여러분과 각계민중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개국일을 맞으면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민중과 함께 걸어온 자랑찬 노정을 돌이켜봤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셨는데요. 오일씨 먼저 말씀 좀 주세요.
오 일 : 예,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이 지구상에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어느덧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정말 그때를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이 자기의 막중한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중선전매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전성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각계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밑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70년 6월 1일에 자기의 첫 전파를 날릴 수 있었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1해는 정말 간고하면서도 보람찬 나날들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방송이 무한한 흥분과 감격 속에 첫 전파를 날린 그 날의 개국사 한 대목을 듣고 얘기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양정아 : 네, 좋습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여러분.

방금 우리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의 역사적인 개국을 알리는 장엄한 첫 개주악을 전 세계에 울려 보냈습니다.

마냥 격동하기만 하는 감격적인 이 순간 우리는 매국악당을 박멸할 내일의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을 그려보며 지나온 투쟁의 험난했던 노정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한국혁명을 향도할 독자적인 혁명적 당을 창립하기 위해 우리 혁명동지들이 통일혁명당의 지방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으로 하여금 전국적 인민운동을 긴밀하게 지도할 전일적인 당으로 발전시키고 존엄과 광명을 만방에 선포한지도 근 1년이 됩니다.

준엄하고도 간고했던 투쟁의 나날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혁명동지들도 빼앗겼고, 또 동지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 혁명의 기치를 치켜들고 한국인민운동사상 길이 빛날 찬연한 종적도 쌓아 올렸습니다.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개시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는 우리 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 용맹하게 싸운 열혈의 혁명가이며 심장의 고동이 멎는 생애의 최후순간까지 수령께 무한히 충성한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혁명전우인 김종태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열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충심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합니다.

조직을 세우고 투쟁을 조직하는 지하혁명활동의 그 간고한 나날에 우리는 당의 견해를 대변하며 당의 의도를 신속 정확히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방송과 같은 유력한 대중선전수단을 가질 것을 얼마나 열망해왔던 것입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염원은 헌신적인 당원동지들의 피어린 투쟁과 전체 인민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의 결정으로써 오늘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고일철 : 정말 감격스러웠던 역사의 순간이었다고 봐요. 그 때는 우리 방송의 전신인 통일혁명당 목소리 였잖아요. 이 통일혁명당 목소리 가 첫 전파를 날리던 그때 말이죠, 하루 2시간씩 방송해 드렸구요. 점차 시간을 늘려 오다가 85년에 통혁당이 한민전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따라서 방송도 구국의 소리 로 했고 방송시간도 하루 10시간씩 하다가 지금은 16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의 역사적 개시는 한민전성원들은 물론이고 진정한 주체의 목소리를 기다려온 각계민중들에게 불패의 신념을 안겨주는 여명의 타종, 투쟁의 등대로 되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그 하수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정말 위력한 포성, **폭탄으로 되었어요.
양정아 : 네, 역대위정자들은 우리 방송이 주체의 전파를 날린 첫 날부터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갖은 방해책동을 다 했잖아요. 뭐 전파방해를 한다, 그 어디에 제소를 한다, 흑색방송이다 뭐다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방송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민족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분투해왔습니다. 각계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대중운동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조직자로서의 중임을 유감없이 수행해 왔죠.
오 일 : 네, 지난 31년 간 우리 방송은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투쟁의 길잡이로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친

근한 동반자로서의 자기 중임을 다 하기 위해서 헌신해왔죠. 무엇보다도 구국의 소리 방송은 대중을 자주의식화하는데 일차적인 주목을 돌렸어요. 시대의 향도이념인 주체사상으로 한민전성원들과 각계민중을 정신무장시켜 왔고요. 특히 청취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수렴해서 온 겨레가 높이 모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각지의 각계민중들 속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것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일철 : 그리고 지난 31년 간의 노정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명실공히 한민전의 선전매체로서 한민전의 정책전반과 활동선전을 충실하게 해왔어요. 한민전의 입장과 주장을 내외에 신속히 알리며 한민전 산하 각급 조직들의 활동상황도 널리 소개했어요.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추이에 따라 한민전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 성명서 등과 ***, 백서, 호소문, 투쟁구호를 비롯한 정치문서를 즉시에 보도했고 그걸 꾸준히 해설했어요. 이와 함께 우리 방송은 민중의 대변자로써 뿐만 아니라 역사의 증견자, 준엄한 심판자로서 시대앞에 지닌 소임도 착실히 해서 청취자들의 믿음과 신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양정아 :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송은 주체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제모순과 부정, 불의를 예리한 목소리로 파헤쳐 왔고 미제와 일본반동들, 역대파쇼집단의 온갖 죄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하고 단죄해 왔잖아요. 이렇게 사회의 공기, 시대의 목탁이 되어서 민중을 정의의 진리로 깨우치고 그들의 심장 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 주었고 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죠. 이 같은 언론활동을 통해서 미제와 그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봐요.

이 같은 몇가지 사실을 봐도 우리 방송은 시대앞에 지닌 중임과 국민의 기대에 유감없이 보답해왔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걸어온 노정은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영광찬 31년이었고 또 민중과 함께 싸워온 자랑찬 투쟁의 나날이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고일철 : 그렇죠.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은 말이죠. 각계애국민중의 투쟁을 내외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주요사명으로 삼고 언제나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은 주체의 전략전술을 알려드리는데도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각자, 운동가들에게 투쟁의 양식이 되고 각계민중의 대중운동이 편차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투쟁향방을 제때에 제시했고 국민의 운동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투쟁의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자주, 민주, 통일의 함성에 우리 구국의 소리 를 합쳐서 각계민중의 투쟁을 고무했어요. 우리 방송은 각계민중과 어깨 겯고 70년대의 가열찼던 반파쇼민주화투쟁의 광장에도 함께 서 있었고 80년대 이 땅에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안아왔고 겨레의 통일대행진에도 언제나 발걸음을 함께 해 왔습니다.

오 일 : 동구권 사회주의의 좌절로 세계가 방황하고 반동적인 사상공세가 강화되던 때에도 이 땅에서는 반공의 보루가 무너지고 주체사상이 급속히 보급전파되었죠. 그리고 운동세력에 대한 파쇼당국의 탄압과 운동의 개량화, 무력화 책동이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도 운동가들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왔고 민족민주운동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전개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 게 아니죠.

양정아 : 네, 그건 바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투쟁의 길잡이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소임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한데서 비롯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 일 : 그래서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각계민중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받고 있는 거죠.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고 그 지도성을 인정하며 따르는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각계민중이 우리 방송을 얼마나 애청하고 있는가 또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 우리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고일철 : 그리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들 속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채록한 책자와 선전물들이 각지에서 다량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는 걸 통해서도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웅변으로 보여준다 하겠죠. 이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 편집국집단은 여기서 자기활동의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기 책임감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각계민중을 공동선언이행 관철에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아 : 우리 구국의 소리 방송이 걸어온 지난 31년 간의 노정은 그야말로 민중 속에 뿌리내려 민중을 각성시키는 선전교양자적인 역할뿐 아니라 대중을 결속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조직자적 역할도 수행해온 자랑찬 나날들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에 관해 한마디하면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각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민중의 조직들이 수많이 생겨났어요. 그 조직들의 대다수가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이고 행동강령과 투쟁구호들도 한민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코 우리 방송의 역할과 무관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구국의 소리 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주체형의 투쟁조직들의 결성에 크게 기여한 말하자면 산파역할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일철 : 옳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역대 파쇼당국은 우리 방송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해왔죠. 심지어 우리 방송 청취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투옥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방해책동과 탄압으로도 결코 주체의 전파, 우리 구국의 소리 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양정아 :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이 개국의 첫 전파를 날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된 길을 걷게 된 건 각계민중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구국의 소리 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고견과 **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중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해서 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전에로 우리 한민전성원들과 각계민중을 힘있게 고무하는 진격의 나팔수, 여명이 종소리로 더욱 세차게 울릴 겁니다. 아울러서 각계민중여러분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방송을 더 많이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각방의 후원을 보내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다시 한번 애청자여러분께 본 방송 편집국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고일철 : 감사합니다.

구국전선

구국전선 지지격려문 1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하여 7천만 온 겨레가 통일애국열기로 들끓고 있는 때에 자료집 ≪통일여명≫을 제작하고 ≪구국의 소리≫방송 내용도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집단동지들에게 우리의 가장 열렬한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 속에서 탄생한 자료집 ≪통일여명≫과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애국투사들에게는 혁명적 양식을 주고 반미자주,통일애국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힘있는 무기로 될 것입니다.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은 생사를 동반하는 혈전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지들에게는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해외 7천만 애국민중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귀 편집집단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민중의 크나큰 기대에 맞게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 영광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통일여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각계민중을 자주민주통일에로 불러일으키는 민중의 참된 선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구국전선≫ 편집국
주체90년 1월 24일

구국전선 지지격려문 2

≪통일여명≫ 동지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우리의 동지적이며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8.15를 기해 주체사상시디 배포투쟁을 성사시켜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비록 파쇼의 광풍을 헤치며 죽음을 불사한 시련에 찬 투쟁이지만 정의와 애국에 살고 언제나 투쟁에 과감한 열혈 청년주체주의자들인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길은 간고하고도 험난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주와 민주, 통일을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동지들의 지혜와 열정에 넘친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통일애국의 길에 서슴없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대오에 동지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7천만 겨레 모두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새 시대의 요구와 각계 민중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맞게 동지들이 변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구국전선≫ 편집국(ndfsk@campus.ne.jp)
주체90(2001)년 10월 1일

구국전선

더욱 헌신분투하겠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답신(편집국 보도 14호)

존경하는 ≪구국전선≫ 편집국동지들에게 충심어린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을 비롯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구국전선≫ 편집국이 보내온 지지격려문을 격동적인 심정으로 받아보았습니다.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기관지, ≪구국전선≫이 이번에 보내온 공개격려문은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 기치로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파쇼의 광풍을 헤치며 죽음을 불사한 시련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필승불패의 한민전이 있기에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통일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며 굴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 초의 경우처럼 이번의 지지격려문도 우리의 한없이 부족한 선전활동에 대한 과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향후 더욱 헌신분투할 것을 바라는 지도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 변혁투쟁의 노정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주민주통일의 선봉대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0월 2일
서울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축하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공동축하문(통일여명 보도 16호)

10월 22일로 ≪인터넷 구국의 소리≫가 어느덧 발표 한돌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대외방송 ≪구국의 소리≫를 녹취, 채록하여 인터넷 상에 정상적으로 공개해 온 ≪인터넷 구국의 소리≫ 한돌을 통일여명 편집국과 6.15주간 편집부의 이름으로, 청년주체주의자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한국변혁운동역사에서 방송녹취채록사업은 늘상 있어왔지만 ≪인터넷 구국의 소리≫처럼 매주 정상적으로 통신 상에 공개한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일정한 궤도에 오른 오늘의 시점에서 와서 총화해 보건대, ≪인터넷 구국의 소리≫로 인하여 ≪방송사업≫은 신속성과 정확성,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시기, 녹취채록집이 몇주씩 늦게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오자, 탈자도 적지 않았으며 수없이 조직사건의 빌미가 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주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그것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아무데서나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서도 ≪국군장병들에게≫ 등 2-3개 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자와 탈자도 아직 극복해야할 지점이 없지는 않지만 극심한 방해전파를 고려하고 이전 녹취채록집과 비교한다면 별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대중단체사무실과 전국에 2만개가 넘는 ≪피시방≫에서 전위조직방송자료를 24시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배포체계≫가 구축된 것은 일대 사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전위조직방침을 별 보위문제 없이 안전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시대의 조건에 맞은 새로운 배포체계는 공안파쇼당국의 그 어떤 탄압책동으로도 와해될 수 없는 불패의 배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안파쇼당국은 ≪통신질서확립법제정≫이니 ≪진보사이트수색소동≫이니 ≪관련업자프락치사건≫이니 뭐니 하며 복닥소동을 일으켰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인터넷 구국의 소리≫의 이름만 온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인터넷 구국의 소리≫가 1년 넘게 공공연히 통신상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식민지파쇼폭압망에 파열구를 낸 참으로 통쾌한 사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공안파쇼당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악랄하게 자행하는 방해전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의 실천적 경험은 공안파쇼당국의 사상탄압, 조직탄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설령 현재의 ≪인터넷 구국의 소리≫가 공안파쇼당국의 악랄한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중단에 머물 것입니다.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이미 불패의 ≪인터넷 배포체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이남의 수많은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제2, 제3의 ≪인터넷 구국의 소리≫를 만들며 이 전략적인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형, 승리의 경험을 창조한 것이 ≪인터넷 구국의 소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안파쇼당국은 이제라도 대세를 바로 보고 복닥소동이나 전파방해와 같은 부질 없는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구국의 소리≫를 매주 정상적으로 녹취채록하고 보기 쉽게 편집까지 해서 통신상에 공개하는 과정이 사실 결코 헐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정리도 문제지만 극심한 방해전파나 공안파쇼당국의 탄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전위조직과 대중을 이어주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더욱 혁신하고 전진하며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

≪구국전선≫ 편집국의 1월말, 10월초 지지격려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동지들의 헌신과 노고는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인터넷 구국의 소리≫편집집단동지들의 건승을 바라며 다시한번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주체 90(2001)년 10월 22일
서울

모두 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자

먼저 통일변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분투하는 한국의 애국투사동지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변혁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고리가 무엇인가를 토론한 결과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변혁의 사령탑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방침을 애국운동대오가 정확히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으며 한국민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온 유일무이한 변혁의 지휘부로서 내외에 공인된 필승불패의 전위조직입니다.

하여 한국변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간고분투하는 한국의 참다운 애국운동가라면 누구나 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목소리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며 그 방침을 변혁투쟁에 구현하기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런 녹취채록문건을 배포하는 그간의 과정을 총화해 볼 때 신속성과 정확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애국운동가들의 바램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통일변혁의 정세가 격동하며 수직상승하는 조건에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운동대오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구국전선 9월 21일자 ≪현시기 학생운동 강화의 요체≫ 라는 문건을 둘러싼 사건을 볼 때 전위조직의 방침을 전파하는 활동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 문건을 둘러싼 파장은 그간 일부운동단위에 방송문건을 배포해온 한 대오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했다가 그것이 ≪구국전선≫ 사이트를 통해 발목이 잡혔다고 많은 운동가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지만 우리가 직접 청취한 해당 방송내용도 그 대오가 녹취채록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여 이는 ≪구국전선≫ 사이트의 내용이 방송 이후 일부 수정보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위조직에서는 방송 당시와 사이트 게재와의 사이의 정세까지도 민감하게 반영하여 보다 시의적절한 방침으로 제시한 것인데 많은 운동가들이 이를 조작사건으로 비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일부 사람들은 한총련을 향해 소수의 횡포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이러한 「비민주성」과 「관료화」 때문에 조직이 경직화되며 결국 학생운동이 자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대목은 원래 있었는데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전위조직에서 이런 내용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운동대오일부의 비민주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적들은 운동대오가 방송을 통하여 전위조직의 방침을 제때 정확히 접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청취방해공작을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직접 방송내용을 녹취채록해오면서 이런 활동의 수고가 적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부 동지들이 그간 일부운동단위에 방송청취문건을 배포해온 노고를 응당히 평가합니다.

허지만 우리는 그 동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방송문건의 내용이 정확하지 못하고 신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그 대오가 모든 운동대오가 공유해야 할 방송문건을 일부운동단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허심하게 총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운동가들이 조작사건이라고까지 비난하고 나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바램과 무엇보다도 전위조직의 방침이 전체운동대오의 심장에 전파되는 과정의 혁신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 많은 동지들이 직접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게 되는 일정기간까지 전위조직의 방침을 정기적으로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시도이지만 한국변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애국동지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전위조직의 방침을 주체의 사상과 전략에 의거하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며 운동대오의 실정과 연관지어 깊이있게 파악함으로써 주관주의나 교조주의에 빠지는 일이나 특히 전위조직을 아전인수적으로 곡해하며 패권주의에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전위조직의 방침에 의거하여 투쟁하고자 하는 견실한 동지들이 이번 사건과 우리의 투쟁을 계기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사실 방송청취는 장비와 열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방해전파를 뚫고 전위의 목소리를 가려듣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신비스러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방송을 직접 듣는다면 전위조직의 방침은 제때 정확히 운동대오에 접수될 것이며 방송문건을 가지고 패권적으로 나오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변혁운동의 지휘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한국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위하여 투쟁하는 한국의 애국운동가들일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한국의 다른 애국운동가들이 이어받아 더욱 전진시켜 나아갈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애국투사동지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 89년 10월 22일

구국의 소리 방송 순서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방송으로써 시대와 민족의 향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향해 싸우고 계시는 민중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친근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구국의 소리 영어방송을 보내드립니다.

■ 저녁방송 (월요일～금요일)

▣ 18:55 방송순서 안내

▣ 19:00 뉴스

▣ 19:10 음악과 함께

▣ 19:20 노동자 농어민 시간

자주로운 새 삶을 위해 억세게 살며 싸워나가는 노동자, 농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 19:40 노래마당

▣ 20:00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시대와 겨레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백두산장군의 거룩한 천출위인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절세위인의 명언

백두산 장군이신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예지로 수많은 명언을 남기시고 계시는데요. 인류 문명의 개화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이 지구촌에는 저명인사들이 남겨 놓은 명언들이 수많이 전해져 왔죠. 하지만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은 명언들은 인류의 명언사에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최상의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명언중의 명언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인류명언의 최고 정화를 이루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연속낭독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21:00 뉴스

▣ 21:10 오늘의 연단

▣ 22:00 구국의 소리 10시 종합뉴스

▣ 22:15 화제의 초점 (한민전 성명, 담화 등)

▣ 22:25 청년학생들과 함께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가는 청년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방송시간입니다.

▣ 22:45 연속낭독 – 장편소설

▣ 23:00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자주의 밝은 길, 참된 삶의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 **김일성**주의 강좌

◎ 운동강좌

◎ 저작강좌

▣ 24:00 뉴스

▣ 24:10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우리 민중이 슬퍼도 괴로워도 언제나 희망을 안고 바라보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민중의 낙원, 이북을 그리는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연속낭독 – **김정일**지도자

▣ 01:00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김일성**주의 강좌

◎ 운동강좌

◎ 저작강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053Khz, 단파 3,480Mhz, 4.400Mhz, 4.450Mhz, 4.557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방송하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단파 4.120Mhz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6.010Mhz로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라면서 구국의 소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서울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 아침방송 (월요일～금요일)

▣ 04:55 방송순서 안내

▣ 05:00 뉴스

▣ 05:10 음악

▣ 05:15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김일성**주의 강좌
◎ 운동강좌
◎ 저작강좌

▣ 06:00 노동자 농어민 시간

▣ 06:20 노래마당

▣ 06:40 청년학생들과 함께

▣ 07:00 뉴스

▣ 07:10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절세위인의 명언
◎ 연속낭독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08:00 뉴스

▣ 08:10 화제의 초점

▣ 08:20 오늘의 연단

▣ 09:30 구국의 소리 영어방송

■ 낮방송 (월요일～금요일)

▣ 11:55 방송순서 안내

▣ 12:00 뉴스

▣ 12:10 화제의 초점

▣ 12:20 노동자 농어민 시간

▣ 12:40 노래마당

▣ 13:00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연속낭독 – **김정일**지도자

▣ 13:40 청년학생들과 함께

▣ 14:00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절세위인의 명언
◎ 연속낭독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15:00 뉴스

▣ 15:10 오늘의 연단

■ 저녁방송 (토요일～일요일)

▣ 18:55 방송순서 안내

▣ 19:00 뉴스

▣ 19:10 음악과 함께

▣ 19:20 국군장병들에게
(일요일 – 19:20 국군장병들에게
19:30～20:00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

▣ 19:40 노래마당

▣ 20:00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절세위인의 명언
◎ 연속낭독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21:00 뉴스

▣ 21:10 오늘의 연단

▣ 22:00 구국의 소리 10시 종합뉴스
(일요일 – 22:00 구국의 소리 주간종합뉴스)

▣ 22:15 화제의 초점

▣ 22:25 이역의 동포들을 그리며
해외동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조국을 그리고 계실 해외동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 22:45 연속낭독 – 장편소설

▣ 23:00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김일성**주의 강좌
◎ 운동강좌
◎ 저작강좌

▣ 24:00 뉴스

▣ 24:10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연속낭독 – **김정일**지도자

▣ 01:00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 **김일성**주의 강좌
◎ 운동강좌
◎ 저작강좌

≪인터넷 구국의 소리≫ 조회수

전국연합 (조회수)

10월 22일 현재 조회수
(≪주체 90, 7월 22~28일≫이후부터 출력용파일 조회수 가산)

모두 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자 - 2000/10/22	1369
주체 89년 10월 19일~28일	953
주체 89 10월 31일~11월 6일	720
주체 89 11월 7일~14일	712
주체 89, 11월 15일~21일	768
주체 89 11월 22일~28일	562
주체 89 11월 29일~12월 5일	401
주체 89, 12월 6일~12일	837
주체 89 12월 13일~19일	678
주체 89 12월 27일~1월 6일	1053
주체 89 1월 7일~13일	1058
주체 90년 1월 14일~20일	950
주체 90 2월 18일~24일	701
주체 90 2월 25일~3월 3일	687
주체 90 3월 4일~10일	809
주체 90 3월 11일~17일	654
주체 90 3월 18일~24일	599
주체 90 3월 25일~31일	613
주체 90 4월 1일~7일	730
주체 90 4월 8일~14일	607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방송	513
주체 90, 4월 18일~21일	545
주체 90, 4월 22일~28일	656
주체 90, 4월 29일~5월 5일	622
주체 90, 5월 6일~12일	596
주체 90, 5월 13일~19일	433
주체 90, 5월 20일~26일	437
주체 90, 5월 27일~6월 2일	753
주체 90, 6월 3일~9일	519
주체 90, 6월 10일~16일	429
평양상봉 6.15공동선언 발표 1돌 특집방송	395
주체 90, 6월 17일~23일	554
주체 90, 6월 24일~30일	451
주체 90, 7월 1일~7일	584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 특집방송	408
주체 90, 7월 8일~14일	587
주체 90, 7월 15일~21일	468
주체 90, 7월 22~28일	717
주체 90, 7월 29일~8월 4일	785
주체 90, 8월 5일~11일	715
주체 90, 8월 12일~18일	532
조국광복 56돌 기념특집방송	472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 특집방송	414
주체 90, 8월 19일~25일	841
주체 90, 8월 26일~9월 1일	575
주체 90, 9월 2일~8일	428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특집방송	256
주체 90, 9월 9일~15일	730
주체 90, 9월 16일~22일	604
주체 90, 9월 23일~29일	697
주체 90, 9월 30일~10월 6일	655
주체 90, 10월 7일~13일	496

민주노동당 (파일다운로드)

10월 22일 현재

KNDF(12.13~19).hwp	DN:7
KNDF(12.20~26).hwp	DN:9
KNDF(12.27~1.6).hwp	DN:7
KNDF(1.7~13).hwp	DN:7
KNDF(1.14~20).hwp	DN:6
KNDF(1.21~27).hwp	DN:6
KNDF(1.28~2.3).hwp	DN:6
KDNF(2.11~17).hwp	DN:10
KNDF(2.16).hwp	DN:12
KNDF(2.18~24).hwp	DN:26
KNDF(2.25~3.3).hwp	DN:34
KNDF(3.4~10).hwp	DN:34
KNDF(2.25~3.3).hwp	DN:34
KNDF(3.4~10).hwp	DN:34
KNDF(3.11~17).hwp	DN:34
KNDF(3.18~24).hwp	DN:33
KNDF(3.25~31).hwp	DN:32
KNDF(4.1~7).hwp	DN:42
KNDF(4.8~14).hwp	DN:16
KNDF(4.18~21).hwp	DN:24
KNDF(4.22~28).hwp	DN:24
KNDF(5.6~12).hwp	DN:28
KNDF(5.13~19).hwp	DN:27
KNDF(5.20~26).hwp	DN:25
KNDF(7.1~7).hwp	DN:36
KNDF(7.7~8).hwp	DN:16
KNDF(7.8~14).hwp	DN:17
KNDF(7.15~21).hwp	DN:28
KNDF(7.22~28).hwp	DN:40
KNDF(7.29~8.4).hwp	DN:24
KNDF(8.12~18).hwp	DN:19
KNDF(8.15~16).hwp	DN:13
KNDF(8.19~20).hwp	DN:14
KNDF(8.19~25).hwp	DN:26
KNDF(8.26~9.1).hwp	DN:18
KNDF(9.2~8).hwp	DN:11
KNDF(9.2~3).hwp	DN:20
KNDF(9.9~15).hwp	DN:34
KNDF(9.16~22).hwp	DN:26
KNDF(9.23~29).hwp	DN:21
KNDF(9.30~10.6).hwp	DN:24
KNDF(10.7~13).hwp	DN:10

진보네트워크≪불온≫ 공방

한겨레신문 2000년 8월 3일

민주노동당(kdlp.org)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nodong.net)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는 북한의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공방으로 진보네트워크참세상(jinbo.net) 서버를 이용하는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지가 닫힐 위기에 처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온세통신과 서버를 빌려준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윤리위는 공문에서 ≪북한체제 선전과 대남교란 목적의 흑색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을 여과없이 지속적으로 전재하는 것은 불온통신에 해당돼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는 온세통신과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성명서를 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당한 상태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불온통신≫ 기준을 잣대로 일방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상 윤리위가 불온통신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해 전용회선 사업자에게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회선을 빌려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웹호스팅 서비스가 중단되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여성단체연합회, 녹색연합 등 진보네트워크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도 문을 닫게 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삭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번 윤리위 처사는 정부와 정권의 행태까지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 의도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거부해 오자, 이제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며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

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 · 한국여성단체연합 · 녹색연합 등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은 검열기관이 아니며≪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들은 이미 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규제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활동은 1996년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똑같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검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럴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도 · 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년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개질의서

발 신 :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수 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참 조 : (주)인터넷제국,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제 목 :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른바≪불온통신≫을 행한자와 그러한≪불온통신≫을 통제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본 단체가 관리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내용은≪해당 정보의 삭제≫이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 단체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 위원회가≪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사적 검열을 부추기고 자유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본단체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 당하고 e-mail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5. 귀 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이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필수서비스가 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입니다.

6. 이에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다 음 –

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나.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다.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없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다면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라.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이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진균 (직인생략)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는 진보넷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행동하는 IJ≫

올해 초부터 공공연히 자행되던 정부의 인터넷 탄압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지난 8월 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가 온세통신, KIDC 등의 회선 사업자에게 500여개 사회, 시민단체들의 웹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에 대한 서비스를 폐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진보넷이 호스팅하고 있는 http://www.nodong.net/, http://stunet.jinbo.net/, http://www.kdlp.org/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불온통신≫ 혐의를 지우고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회선 사업자에게는 ≪구국의 소리≫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요청은 사실상 진보넷 웹호스팅 네트워크 전체를 끊어버리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검열 기관이 아니다≫라던 윤리위의 해명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버젓이 검열 행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윤리위의 시정 조치는 방법상으로도 커다란 오류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 또는 웹호스팅 사업자(진보넷)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닌, 회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구국의 소리≫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구국의 소리≫와 상관 없는 수백개의 사회단체 사이트까지 모두 차단시키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가? 작년≪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시위로부터 불거진 진보넷과 정통부 사이의 대립에 따른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윤리위가 검열의 철퇴를 내리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적 근거인≪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윤리위는 태생부터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안고 출발한 조직이다. 정통부와 윤리위의 주장대로≪자율적인 정화≫만을 뒷받침한다면, 어째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보급을 정통부가 주도하는 것이며, 어째서 윤리위가 회선 사업자에게 압력을 넣는≪검열 행위≫를 일삼는 것인가? 이제 윤리위는 ≪검열기관이 아니다≫라는 위선적인 기만을 중단하고 위헌적인 검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적 요소를 개정하고 윤리위를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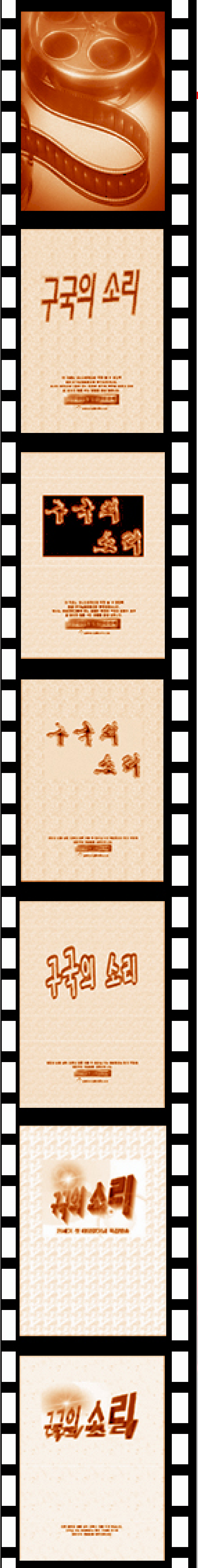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 8.9.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행동하는 IJ≫





새해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90, 1월 1일 ~3일)

애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첫해가 만민의 축복 속에 휘황히 밝아왔습니다.

**며 한해를 돌이켜보는 ** 구국의 소리 방송은요, 지하단위에서 전력투구의 시련에 찬 길을 뚫고나가는 한민전의 전위들과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시며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향의 각계애국민중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와 열렬한 축하드립니다.

네, 되돌아보면 주체의 ** 투쟁해온 구국의 소리 방송은 ** 20세기와 더불어 자기의 출범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해 애국민중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이 돼서 힘차게 싸워왔구요, 세계 투쟁사에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겼습니다. 투쟁은 엄혹하고 가는 길에 시련이 **도 우리 구국의 소리 가 오늘의 자랑찬 승리의 모범을 벌여낼 수 있은 건 애청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기탄 없는 ** **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구국의 소리 편집부는요, 애청자여러분과 맺은 이 뜻깊은 인연,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없이 한국변혁운동의 진로를 밝히는 휘황한 등대, 성스러운 투쟁의 나팔수, 친근한 동반자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무궁번영할 통일강성대국건설은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청자여러분 새해에 자주민주통일운동에서 보다 큰 전진과 알찬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온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 구국의 소리 편집부에서 마련한 새해특집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한국민족민주전선 축하문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청년전위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 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논설
김정일영도자님의 향도 따라 조국통일의 새 지평을 열자

21세기의 유일사상

서시

21세기의 태양





구국의 소리 2.16 특집방송

구국의 소리(주체90 2월 16일～주체90 2월 17일)



목차

한민전 중앙위원회 축하문
 21세기 태양이신 민족의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교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시
 새 세기 첫 2월의 축원
 ≪서사시≫ **김정일**장군

논설
 축복을 받으시라 21세기의 태양이시여
 태양의 빛발 따라 통일의 새 날을 열자

대담
 위대한 가문
 위인과 온 세계의 자주화

조선아 너를 빛내리

글
 지구촌의 환호
 세계를 움직이는 주체외교
 2000년 조선충격
 김정일, 자주와 존엄의 상징
 태양회의 회원들의 충고의 목소리
 2월의 명절을 맞는 청년학생들의 결의

종합편집물 – 영원히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리라
 21세기와 2월 16일의 의미
 눈이 내린다

애청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신절 기념 구국의 소리 특집방송 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모두 인류가 우러르는 절세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크나큰 자긍심을 지니고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 헌신해야 할겁니다.
장군님을 따르고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민족의 밝은 내일이 있고 겨레의 숙원인 통일이 있음을 명심해야겠죠.
그럼 애청자여러분의 건투를 바라면서 이 시간 특집방송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4월 15일~17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빛이 대지를 녹여주고 온갖 만물이 생의 환호로 약동하는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태양절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반도삼천리에 주석님에 대한 뜨거운 대하의 마음 대하처럼 흐르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태양숭배, 위인칭송의 송가가 소리 높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만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행성에 굽이치고 있는 이 날을 맞아 우리 민중은 경애하는 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그분께 영생기원의 큰절을 삼가 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암흑에 짓눌리고 원한이 서리었던 이 땅에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이 솟아 오른 민족적 대경사의 날이고 새 세기의 창조와 새로운 인간사랑을 예고하는 위대한 역사의 날이었죠.

여러분.

태양은 찬란한 빛으로 누리를 밝히고 따스한 열로 만물을 품어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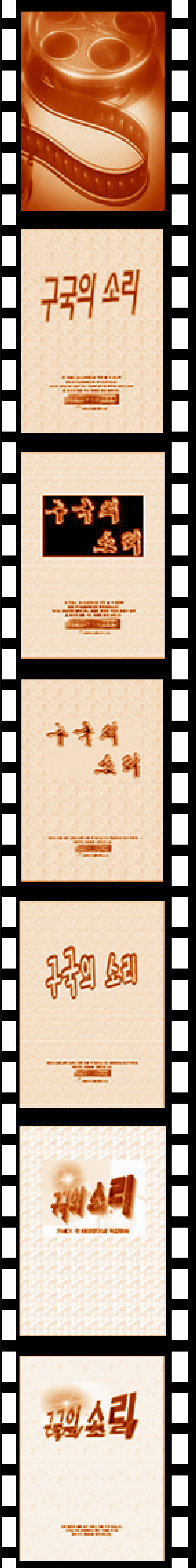
바로 **김일성**주석님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깃발로 세계를 밝히시고 탁월한 영도와 숭고한 덕망으로 만민을 이끌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민족과 인류를 위해 걸으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불멸의 자국자국 마다에는 주체사상의 기치하에 펼쳐진 민족자존과 존엄의 거룩한 역사가 새겨져 있고 인류 모두에게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인간사랑의 숭엄한 화폭이 어려 있습니다.

정녕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고 인류가 세기를 두고 염원해 오던 만민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주석님을 경모하고 따르는 민중의 마음 그토록 뜨거운 것이고 주석님은 만민의 위대한 태양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겨레와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 태양절을 맞으면서 마련한 구국의 소리 특집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한민전 중앙위원회 편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명제
　김일성주석님은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통일은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고 태양입니다

시
　꽃 계절
　축원
　4월의 찬가

논설
　민족의 영원한 하늘
　김정일영도자님 향도 따라 통일강성대국 세우자

에세이
　돌아보는 세기
　시대의 등불을 밝혀 주신 위대한 사상가
　김일성주석님은 태양조국의 시조

대담
　≪좌담≫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
　≪좌담≫ 한평생 민중행 열차를 타시고
　≪좌담≫ 통일산줄기가 전하는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불멸의 업적
　≪좌담≫ 20세기 자주위업을 이끌어 오신 분
　영원히 따르리

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20세기의 대위인전
　≪수기≫ 개선문은 말한다
　문목사에게 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에 관해
　≪탐방기≫ 4월의 민심을 찾아서
　≪회고기≫ 잊을 수 없는 불멸의 사적지
　태양의 존함은 온 세상에 빛난다
　주석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장군님을 통일단상에 높이 모시자
　주체연호에 대한 생각

뉴스
　주체 90, 4월 15일
　주체 90, 4월 16일
　주체 90, 4월 17일

특집방송을 마치며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방송을 마치며

평양방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더불어 길이길이 영생하실 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9돌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위대한 태양
　≪시≫ 우리의 4월 15일
　≪시≫ 우리 수령님

조선중앙방송
　≪정론≫ 영원히 빛나라 주체의 태양이여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인민이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태양의 모습
　≪실황중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89돌 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 봐주시고 저희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시고 열어드린 21세기 첫 태양절기념 특집 여기서 작별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을 그리는 우리 마음 ** 마련해본 특집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도 없지 않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김일성**주석님께서 한생을 바치신 통일성업, 경애하는 장군님 향도 따라 기어이 하루빨리 이루어 영원한 태양의 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기다리시는 주석님을 찾아 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분발, 또 분발의 결의를 새롭게 한 그것이죠.

그럼 구국의 소리 편집국이 마련한 태양절 특집 여기서 전부마치겠습니다.

애청자여러분의 건투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돌 기념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6월 13일～16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단조국의 산야를 6월의 폭양보다 더 뜨거운 통일열기로 달궜던 역사적인 평양상봉.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환희, 감격으로 설레이고 온 인류가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냈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1돌이 되었습니다.

대결과 반목으로 이어진 치욕의 분단시대를 화해와 단합으로 나가는 통일시대로 돌려세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그것은 정녕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통일경륜과 비범한 영도력, 한없는 도량과 숭고한 덕망이 엮어낸 불멸의 금자탑, 통일기념비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2박3일간, 분단반세기에도 이룰 수 없었던 불멸의 공적을 통일운동사의 연대기 위에 찬란히 아로새기셨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세기의 분수령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2000년을 우리 민족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셨으며 통일을 이루고 강성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기에 오늘 서울과 부산, 저 멀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중 모두는 **김정일**장군님의 태양같은 영상을 우러러 감사의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있으며 그분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이시고 통일의 영수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세워주신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이 있기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 더더욱 굳세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채택 1돌을 맞으며 저희 ≪구국의 소리≫방송이 마련한 특집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한민전 중앙위 편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담화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기자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명제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시
6월 노래
≪시모음≫ 6월의 메아리

논설
통일의 여명을 안아온 민족사적 쾌거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통일강성대국 세우자

에세이
위인과 유머
위인과 점퍼
통일과 민족공조

좌담
온 겨레를 매혹시킨 통일의 태양

글
활화산처럼 터져 오른 경향의 환호
송이버섯에 대한 생각
≪시론≫ 현대판 놀부
고목에 꽃을 피워 주신 분
위인칭송가사를 통해 본 민심

반향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구촌의 환호
주한미군 존재명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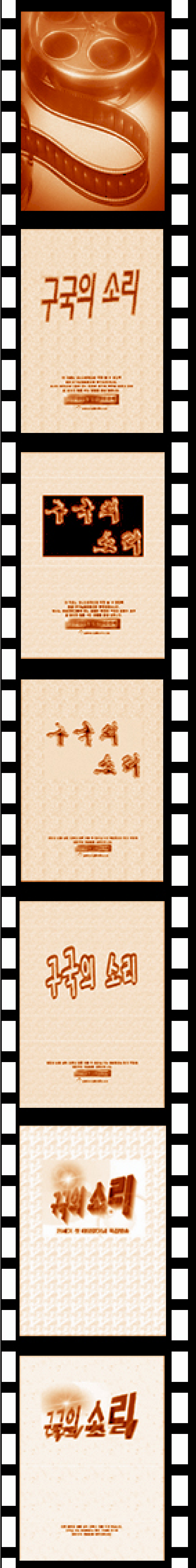
특집방송을 마치며
기념특집방송을 마치며

평양방송
≪정론≫ 강성부흥하자
통일위업 완성의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조선중앙방송
외세의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뜻깊게 맞고 있는 민중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방송,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중여러분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은경,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돐 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7월 7일~7월 8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깊은 흔적을 남긴 7월 8일.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쓸어간다지만 지나간 7년 세월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가슴속에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뜨거운 숭배심을 더욱 두텁게 쌓아놓은 나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은 우리 민중은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불같이 사시다가 20세기 역사위에 그처럼 위대한 자국을 남기신 **김일성**주석님을 끓어오르는 흠모심과 젖어드는 가슴으로 뜨겁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창시로 인류에게 운명개척의 열쇠를 주셨고 이북땅위에 자주의 강국을 펼치셨으며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외세와 파쇼의 사슬에 얽매어 몸부림치는 우리 민중을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신 위대한 어버이. 생애의 마지막 시각에도 통일문제 관련서류를 보시고 거기에 후세에 길이 전할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주석님을 우리 민중은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희세의 위인이십니다.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남기신 주석님의 노고 얼마였고 걸으신 길 또한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 참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까.

정말 주석님의 일생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해 바쳐진 정의와 사랑의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영원하고 그분의 공적이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기에 만민은 **김일성**주석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한없이 우러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시고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한없는 존경심과 절절한 그리움에 떠받들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서거 7주기를 맞아 저희 구국의 소리 방송이 마련한 특집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김일성주석님은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한민전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명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

시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친필비는 서있다

대담
조국통일은 주석님의 필생의 염원

민족의 영원한 태양
신성한 추억의 기념비 울음홀
민족자주통일의 구성

논설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에 따라 전진한다
주석님의 유훈지켜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자

글
에세이 충성의 7년
그리움과 경모의 7년

특집방송을 마치며
특집방송을 마칩니다

7월을 맞아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모셨던 민족의 긍지,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는 우리 민중, 우리 겨레입니다.

주석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석님 그대로이신 장군님 모시어 이 땅에 주석님위업 활짝 꽃펴날 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주석님의 유훈관철에로 우리 겨레를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기에 주석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조국통일도 이룩되고 이 땅에 강성대국이 건설되어 우리 민족은 무궁번영할 것입니다.

네, 그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서거 7돌을 맞으며 주석님을 그리며 위대한 장군님 영도따라 주석님 유훈관철에 한몸 다 바칠 결의 더욱 굳게 다지고 계시는 민중여러분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민중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방송 여기서 전부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조국광복 56돌 기념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8월 15일~16일)



애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나라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하고 있는 뜻깊은 환경속에서 8.15광복 5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은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몸소 수만리 외유의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숙여 인사를 올림과 아울러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 영생기원의 큰절을 삼가 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15광복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기치하에 민족의 자력으로 삼천리강산에 자주와 독립, 행복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일대 전기였고 민족사적대경사였습니다.

그러나 8.15광복은 외세에 의해 급기야 분단으로 이어져 나라의 허리가 두동강나고 혈맥이 끊기우는 통한의 비극을 겪게 되었고 뼈아픈 분단의 고통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자자손손 단일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새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세계의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 세계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고 그분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우리 겨레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하고 반세기이상 응어리진 분단조국의 한을 통일강성대국현실의 무한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서 민족의 번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야 말겁니다.

그날을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의 혈로를 헤쳐온 애국민중에게 우리 ≪구국의 소리≫방송은 뜨거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복56주년 기념특집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광복절을 맞는 애청자들에게

한민전 중앙위원회 축하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명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과제

논설
통일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통일의지의 숭고한 체현자
통일태양따라 민족의 숙원이루자

시
8월의 우리 노래
추억의 8월

대담
8.15광복과 **김일성**주석님
온 겨레를 안아주는 광폭의 품
위대한 청사진
민족의 수난과 미국

글
광복절에 대한 생각
태양조국의 시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주의 이상국입니다
분단의 상징
단결은 통일입니다

특집방송을 마치며
조국광복 56돌 기념특집방송을 마치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하는 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8월 19일~20일)



애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7, 8월의 삼복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방문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귀국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지금 무한한 감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으로 해서 가슴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로 5만리, 날짜로 20여일간에 걸친 러시아방문, 이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류자주화위업과 민족의 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영원불멸의 대업적이고 인류사적대경사라 하겠습니다.

하기에 우리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지금 이시각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하는 구국의 소리 편집국의 특집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축하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시
영광을 드립니다
장군님만세

대담
겨레와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노래와 기사
축하합니다

글
유라시아대륙을 휩쓴 경모의 물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취미
꽃주단을 펴드리고 싶어요
김정일동지의 러시아방문은 잊지못할 사변으로 된다

상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특집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 90, 9월 2일~3일)

9월 2일은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겨레 모두의 열렬한 축복속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된 때로부터 1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는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가슴은 지금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크나큰 격동속에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역사에 유래없는 인간사랑의 대서사시적 화폭을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차디찬 감방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정이 없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했던 비전향장기수, 그런 이들에게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의리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시어 비전향장기수 모두를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역사에 처음보는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에 서있던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뜨겁게 안으시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김정일**영도자님, 위대한 태양의 그 품이 있어 비전향장기수들의 영광차고 자랑찬 오늘이 있고 통일조국의 찬란한 내일도 있는거죠.

그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품에 안겨 보람찬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을 다시금 뜨겁게 축복하면서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이 준비한 비전향장기수송환 1돌특집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차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특집방송을 시작하며

한민전 대변인 담화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시
그들의 모습

논설
의리와 인덕의 화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세이
태양의 통일전사들을 축복한다

대담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이 가지는 의미
태양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행복의 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방문기
행복넘치는 통일애국투사들의 가정을 찾아서

편지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신 선생님들이시여 안녕히 가십시오
참 삶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특집방송을 마치며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특집방송을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분께선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마련한 ≪구국의 소리≫특집방송을 들으셨는데요. 인류가 알고 온 겨레가 알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이들이야말로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강자, 태양숭배의 화신들이라 하겠죠. 하기에 시대와 더불어 역사와 더불어 그들의 생은 금별처럼 빛나는 것이고 우리 겨레 모두의 마음 속에 참 인간의 숭고한 **로 영원토록 간직돼 있을 겁니다.

그럼 비전향장기수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새겨가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청자여러분들의 투쟁에서 알찬 열매가 결실되기를 바라며 이시간 특집방송 여기서 작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입니다.



8월의 아침에

녹음이 우거진 8월의 아침
가슴에 손을 얹으며 뜨겁게 불러본다.
한국민족민주전선 그 이름 부르며 부푸는 가슴에
희망과 용기 싸우는 보람을 가득히 안아온다.
애국애족에 불타는 하나의 이름
새벽이슬 맞으며 총검의 숲을 헤치며 하나 둘 마주잡은
뜨거운 손들이 피어린 시련의 날과 달을 넘어
드디어 21년전 이날 온 세상에 창당을 선포한 한민전
어두운 이땅에 새날을 부르며
영광에 찬 주체의 항로를 꿋꿋이 열어온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대여 !
그대 언제부터 이 가슴에 이처럼 튼튼히 자리잡고
거세게 일렁이고 있는 것인가
하시절 싸우는 거리에서 신심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내 처음으로 그대의 모습 눈동자에 담았고
내 그대의 목소리 구국의 소리를 들으며
주체의 양식 받아안고 인생의 항로 찾았으며 서야 할 좌표를 찾았다.
내 그대의 목소리 따라 외치며
나의 삶이 무엇 위해 필요하고
어디에 바쳐져야 하는 가를 배웠도다
한민전 성원들이 반미애국의 전위투사 열렬한 애국자들임을 깨달았다
아! 한민전
억센 손들을 들어 나를 성원으로 받아줄 때
나는 서약을 했다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위대한 태양을 향해 미소를 보낸
김종태 최영도 동지들처럼 살리라고
내 싸우다 싸우다 쓰러진대도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심장의 숨결을 그대 한민전
내 조직과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아! 그품에서 그 이름과 함께
내 삶을 빛내임은 얼마나 큰 자랑인가
그 때문에 아! 그 때문에
주체의 빛발아래 빛나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온 한민전
그처럼 빛나고 그처럼 자랑스럽게 간직된 것이오니
8월 25일 역사의 날에 높이 외친다
싸우는 한국민중의 전위대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한민전
기어이 승리하리라 정의와 진리의 투쟁에서
기어이 안아오리라 자주 민주의 새봄 통일의 새아침을
햇빛 밝은 삼천리 강산 하나의 꽃물결로 일렁일때
내 떳떳한 가슴으로 목청껏 부르리라
자주만세! 민주만세! 통일만세를!!
아 그날 위해 그날 위해 내한몸 다바쳐 싸우리라

일체의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백**씨가 쓴 글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89년 11월 15~17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지난 기간의 통일운동단체들의 분열상과 변혁운동의 침체는 분파주의의 해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례 없이 유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분파주의로 인해 운동대오의 상층이 분열됨으로써 그 여파가 기층의 분열로 나아가 대중의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운동대오가 분열되니 당연히 대중도 분열되고 대중이 분열되니 투쟁이 힘차게 진행될리 만무하다.

분열과 침체의 원인과 단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분파주의의 바탕에는 수정주의와 관료주의가 숨어 있으며 치졸한 주도권 다툼이 깔려있다. 《대중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며 변혁의 원칙을 거세하는 수정주의와 《원칙》과 《변혁》을 교조주의적으로 되뇌이며 직권으로 내려먹이는 관료주의는 운동대오에서 서로 패권을 다투는 분파주의의 사상적 바탕이다.

통일운동대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구국전선 에서 지적하듯이 오직 조국통일3대헌장뿐이다.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원칙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운동단체의의 지도부는 응당 지난 통일투쟁에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고수해온 견실한 통일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운동단체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점을 추구하고 다른 점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조직 및 투쟁 사업을 우선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한편 이견은 뒤로 미루고 차차 실천으로 극복해나가는 이 원칙이야말로 통일운동단체들이 명심하여야 할 단결원칙, 행동원칙이 될 것이다.

민족해방자주대오는 조직사상적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지난 기간의 분열사태의 본질과 분파주의자들의 죄행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똑똑히 관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층의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상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자주대오는 어느 한쪽으로의 줄서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변혁의 원칙을 저버리는 수정주의나 반면 내려먹이는 식으로 사업하는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을 척결하여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으로 일체의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아래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수정주의, 관료주의와의 일대 사상전을 전개하자

쏘련을 비롯한 일부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수정주의적 변질에 기인한다. 혁명선대들의 수십년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의 전취물은 당이 관료주의의 낡은 정치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변혁적 원칙을 거세한 수정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관료주의, 수정주의는 변혁과 건설의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경계하고 투쟁하여야 하는 반변혁적인 반동사상으로서 참다운 지도이념과 정치방식이 구현될 때에만 궁극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

한국의 민족해방자주대오에는 현재 수정주의와 관료주의가 적지않게 퍼져있다. 《대중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며 변혁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수정주의가 개량주

의, 절충주의 모습으로 확산되어 있다면 《원칙》과 《변혁》을 주장하며 사상이 아니라 직권으로 내려 먹이기식 사업을 하는 관료주의가 유일 변혁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일부 대오에 뿌리깊이 잔존하고 있다. 이 두 흐름이야말로 지금 *** 투쟁을 침체시키는 사상적 바탕이다. 이 두 사상편향은 조직에서 분파주의로 드러나고 투쟁에서 보신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정주의, 관료주의와의 일대 사상전은 운동대오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변혁운동을 대중화하고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초미의 당면과제로 되었다.

수정주의나 관료주의는 모두 민족해방자주대오내에 침투한 부르조아사상으로서 운동대오를 분열시키고 투쟁을 침체시키는 대표적인 기회주의사상이다. 이는 모두 부르조아 및 소부르조아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이나 민중의 자주사상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철저히 반변혁적인 반동사상이다. 수정주의가 수령관과 전위조직관을 중핵으로하는 변혁의 원칙을 거세하며 투항과 타협을 설교하는 반동사상이라면 관료주의는 중앙의 일군이라면서 기층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하지않고 책상위에서 작성한 계획서만을 내려먹이며 호령하는 식으로 사업하는 낡은 사업방식이다. 이런 기회주의사상이 기생하는 주체적인 원인이 민족해방자주대오의 전반적인 조직사상수준이 높지 못한데 있다면 객관적인 원인은 당국의 탄압과 회유 책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해방자주대오내의 수정주의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성된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이며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운동대오가 철저히 무장하는 한편 민족해방자주대오에 변혁적 원칙을 확립하고 변혁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민중적인 사업작풍을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주의와 관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전을 전개하며 프락치와 분파주의자들을 기층으로부터 대중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사상전은 당면한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연관지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그간 투쟁이 침체되고 분열이 있었던 원인을 기층에서부터 심각히 **하는 바탕에서 전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해방자주대오는 수정주의, 관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보고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일체의 분파주의를 청산하고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한편 변혁적인 군중노선으로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수정주의와 관료주의와의 사상전은 민족해방자주대오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전반적인 조직사상수준을 한 차원 비약시키는 역사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무릇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변혁운동을 장성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큰 예비와 잠재력은 바로 민족해방자주대오의 사상적 순결성을 제고하고 일심단결을 담보하는 데 있다. 모두가 수정주의, 관료주의와의 사상전의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자.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사상전의 폭풍으로 프락치와 분파주의자들의 분열책동을 날려버리자.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90년 6월 13일~16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한돌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13일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석상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출판보도부문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 우리 나라주재 여러나라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온 겨레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이남의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 7천만 민족에게 통일의 밝은 빛을 안겨주고 민의를 격동시키는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러 숭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어오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회견에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숭배열기와 통일열기로 가득찬 이남의 민심동향에 대하여 통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민족과 인류를 격동시켰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남민중의 시각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남민중은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고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불면불휴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고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마땅히 그 본연에 맞게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데로 지향되어야하고 온 민족의 화합과 단결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이 민족자주의 통일대강을 펼쳐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5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도 이남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북의 이처럼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세월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돌고 민족대결과 분열의 비극이 지속된 이유는 미국의 대한반도 침략정책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남을 강권지배하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남과 북이 마주앉아 민족의 지향에 맞게 통일의 방도를 모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횡을 막아야 하였습니다.

이점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구가 깨어진다고 하여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담력과 철의 의지로 미국의 전횡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한반도정세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조건들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지난해 6월에는 마침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북의 승리, 이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냉전과 대결이 지속되던 한반도에 화해와 단합의 장을 펼친 역사적 화폭이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의지를 내외에 선포한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이 이남 각계민중의 의지와 지향으로 전환되었고 조국통일위업이 자주의 기치따라 전진하고 장

군님의 두리에 이남의 전체민중이 굳게 뭉쳐가는 것이 오늘 이남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국면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자주시대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어 격변하는 세계를 자주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기개와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하기에 오늘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 민족운명의 수호자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는 위인숭배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TV화면으로 장군님을 뵙고 환희의 감격을 터쳤던 이남의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오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앞을 다투어 지면에 밝고 정중히 모시는 새로운 위인숭배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남의 거의 모든 출판물들에서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림, 전시회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초까지 이남의 출판물들과 전시장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현상이 우리가 초보적으로 파악한데 의하더라도 10만회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말 서울에서 노컷이라는 미술전이 열렸는데 여기에 출품된 장홍근화백이 제출한 ≪아-한반도≫가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셔서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것으로서 음양 양쪽에 이북의 공화국기와 이남깃발을 대칭되게 개양된 것을 형상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양지쪽에는 펄럭이는 공화국기를 배치했고 공화국기안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숭엄한 감정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남깃발은 그늘진 음지쪽에 공화국기보다 낮게 배치했고 그 깃발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만 모시고 공화국기를 햇빛밝은쪽에 배치한 것은 우리 민족의 걸출한 영웅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밖에 없으며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솟을 것이며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기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이남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 세상의 모든 명문장, 명단어를 다 찾아내어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존칭사는 무려 일백수십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남의 인터넷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올린 ≪세계최초 **김정일**장군님존칭모음≫이라는 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태양≫, ≪위인중의 위인≫, ≪백전백승 불패의 명장≫ 등 무려 125가지 존칭으로 칭송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남에서는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를 쥐락펴락하시며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이북식 사회주의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력에 대한 칭송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남 민중은 **김정일**총비서의 고비와 위기를 도리어 역전의 기회로 삼아 화를 복을 전환시키는 정치감각과 통찰력, 과감한 결단력과 신축자재하고 능활한 협상력에 의해 미국의 거만한 콧대가 꺾어졌다면서 통일실현에로 7천만민족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과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같이 탁월한 통일전략가, 강인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7천만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조직동원하는 위대한 정치지도자, 절세의 위인의 영도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칭송하면서 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이남의 주간잡지 주간한국은 ≪**김정일**외교술의 비밀≫이라는 기사에서 **김정일**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대외관계를 자신의 의사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최근에 관여한 일련의 활동을 보면 탁월한 전략가임을 시사하는 대목이 여러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남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남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통일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선정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 민중은 선군혁명영도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이북식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만방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방식에 탄복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창건55돌행사에 참석했던 이남의 정당, 단체대표들은 북에 가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는 구호가 제일 실감났다고 하면서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겨레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해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영도에 감탄을 금치못해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정이종차장은 자기 글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민족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김정일**총비서의 영도력은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이남에서는 장군님의 자주외교로 북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강대국들이 모두 찾아와 평양은 국제수반외교의 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력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을 연구체득하는 새로운 단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김정일**국방위원장바로알기운동≫과 대학원들에 북한과가 신설되고 주체사상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 한 실례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이남의 각계층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토론회가 공개적으

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북한과들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영도≫, ≪주체사상연구≫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론과목들이 취급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학습교재로 되고 있습니다. 이남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5월까지 인터넷자료집 ≪통일여명≫ 창간호와 2호, 3호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비롯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전문들을 실었으며 수십제목의 노작제목들을 학습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실로 이남에서 일고있는 위인숭배열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력에 공감하고 탐복한 이남민중들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중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사상도 굳히고 풍모도 같이하려는 열정의 발현입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이론과 영도력,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이남의 각계민중의 위인숭배열기는 또 새로운 통일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노선과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노선에 이남민중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호응해나서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이남민중의 인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오늘 절대다수 민중이 미군의 이남강점을 종식시키고 남북대결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문제연구단체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가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고 미국인을 이남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외국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언론들에서는 ≪미군은 이땅에서 물러가라≫는 표제의 특집을 게재하는 등 반미의식화에 초점을 맞추고있고 각계층 민중들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한 데 이어 하나의 통일적인 반미운동연합단체 조직에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에 대한 이남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반대배격하여 나서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8개단체의 주최하에 이남의 각계민중은 서울에서 미사일방어체계구축저지와 한반도평화실현범국민대회를 열고 북침을 목표로 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구축책동을 반대배격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남의 종교인대표 103인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시기 적지않은 이남 민중이 미국을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통일후에도 미국이 주둔해야 한다고 대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의식전환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남에서 통일운동이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과 노선에 따라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또한 통일운동이 이북민중들과 연대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에서 이북민중들과의 연대연합은 지난 1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북녘 친구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남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8개 사회단체들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이북과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6월 15일에는 남북의 각계인사 600여명의 참석하에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통일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가지자는 이북의 제의에 호응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 5월, 이북의 노동자들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노동자계급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남의 남북교육문화교류 연구소는 조선기자들과 서울과 평양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소재하의 사진전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이러한 제반사실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이남민중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영원히 청춘으로 지내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옹호고수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이남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와 조국통일열기에 의해 미국과 수구세력들, 분열주의세력들이 위축되었었던 그들의 침략적 반통일적 책동은 더욱 교활하게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이어 재래식무기문제까지 고안해가지고 강경대응, 동해에 무력배치를 진행하며 통일의 길에 방해를 조성하고 있고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은 공조와 안보를 떠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저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냉전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흉악한 범죄적 책동입니다. 그러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의 진로를 따라 전진하는 한민전과 이남민중의 앞길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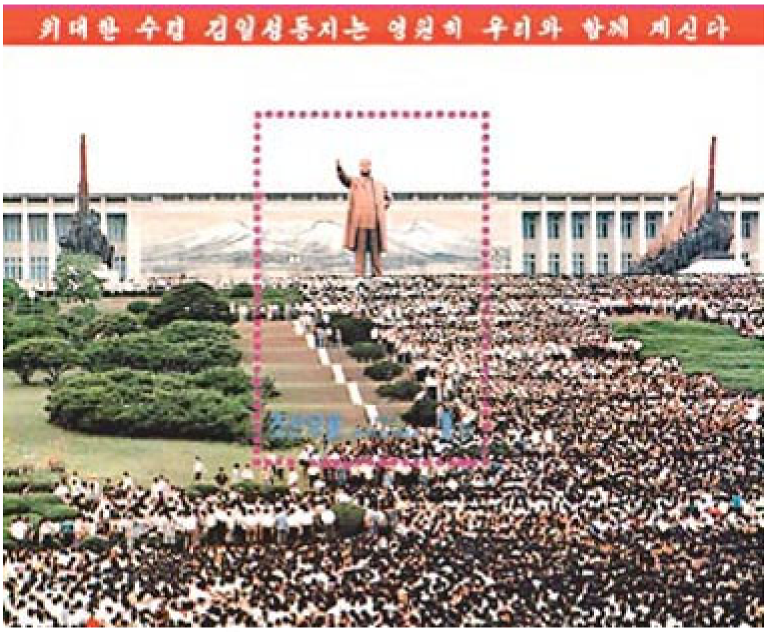
우리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 나감으로써 기어이 통일의 새 날을 앞당기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내외기자여러분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정의의 필봉으로 한민전과 이남민중들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그리움과 경모의 7년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90년 7월 8일



이 철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것 같은 크나큰 충격과 슬픔속에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비보를 접하던 못잊을 그날로부터 어느덧 7년.

양정아 : 그 무수한 날과 날들은 주석님을 못잊어 흐르는 마음과 마음들이며, 그분을 우러르는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과 마음들이 뜨겁게 분출되어 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철 : 그리움과 경모의 7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세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주석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리는 우리들입니다.

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횃불로 영원히 빛을 뿌릴겁니다.

내 고향은요, 6.25때 **김일성**주석님 다녀가신 고장이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석님 다녀가신 집이랑 잘 가꾸면서요, 매일매일 주석님 얘기로 꽃을 피운다구요.

김일성주석님은 정말 우리 민중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셨죠. 주석님께서 이남민중을 위해, 민족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사랑과 노고를 어찌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잊을수 있겠어요.

이 철 : 네, 주석님을 잊지 못해하는 각계민중의 반향이었는데요.

양정아 : 지난 7년간 우리 민중의 가슴가슴마다에서 주석님을 그리며 경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분출되었는지 김혜정씨 통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철 :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 안녕하세요. 지난 7년간 우리 민중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을 더욱더 깊이 절감하고 그분을 끝없이 그리며 경모해왔는데요. 우선 해마다 그분의 탄생일인 태양절과 서거일을 맞을때면 주석님을 회고하며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는 각종모임과 강연회, 기념도서 및 소책자발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어요. 태양회 나 백두청년회 를 비롯한 각계 이념소조들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 , 모두다 옷깃 여미고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자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씨디들과 **들을 제작배포하거나, 주석님의 *** ***을 카세트테잎들에 옮겨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주석님의 위인상들을 담은 글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 기간 주석님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을 칭송찬양하는 시, 노래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학작품들 또한 수많이 창작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를 찾아서 주석님의 저작과 그분의 주체사상과 관련한 도서들을 깊이 탐독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열람, 대출된 자료들을 보면 **김일성**저작집 , 주체사상총서 같은 서적들이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분들중에는 대학생, 교수는 물론이고 연구소 및 언론기관직원들과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한편 서울과 경기도, 평택, 포천, 충주의 수안보 등 주석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고장들에서는 주석님 다녀가신 자랑이 전설처럼 전해가고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쌓아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철 : 네, 김혜정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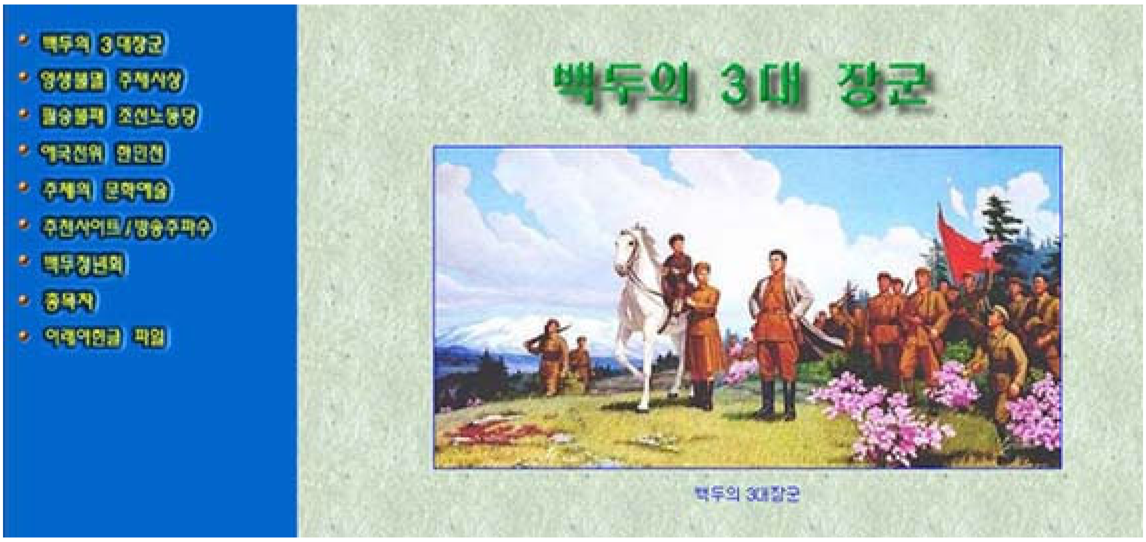
김혜정 : 감사합니다.

양정아 : 경애하는 주석님을 그리며 경모하는 우리 민중의 마음은 그분께서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철 : 그럼 여기서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태양의 집

양정아 : 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국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대강을 안겨주셨고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7천만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분투 하셨습니다.

이 철 : 그리고 주석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중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셨죠.



양정아 : 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시는 윤정아씨, 글 보내주셨는데요. 임현아씨 낭독으로 들어보시죠.

못잊어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것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이남백성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랑을 주신 우리 민중의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건져주신 **김일성**주석님. 그분께서는 3.8선이 막히면서 끊어졌던 **발전소에 전기를 보내주셨고 봉암저수지를 열어 남연백벌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셨다. 6.25때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노동자들도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셨다. 그리고 인민군부대를 동원하셔서 서울시민의 땔감까지 해결해주셨다. 1984년 수해때 주석님께서는 전례없는 구제조치를 취해주셔서 우리 민중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적셔주셨다.

그 하늘같은 사랑, 크나큰 은정을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어떻게 잊으랴.

민중이 언제나 잊지 않고 영원히 추억하는 분은 민중과 함께 영생하는 법이다. 우리의 친근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진정 우리 민족의 하늘이시다.

이 철 : 네, 우리 민중에게 돌려주신 그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석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윤정아씨,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양정아 : 주석님을 그리며 경모하는 마음은 우리 민중뿐아니라 온 겨레와 인류의 공통된 심정이겠는데요. 주석님서거후 1년동안에만해도 세계각국의 유명한 작가, 예술인, 각계층 인사, 근로자들속에서 200여편의 추앙시가 창작발표되었습니다. 서거후 1년간 평양만수대언덕의 주석님동상에 18만2,800여상의 꽃바구니와 872만 8,500여개의 꽃다발, 꽃송이들이 증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철 : 그런가 하면요, 세계 여러나라 신문, 방송들이 주석님의 탄생일과 서거일을 계기로 특집들을 마련하고 주석님을 칭송하며 그리는 세인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담아보였는데요. 러시아신문 이스토키 98년 4월호에 실린 인류의 태양 **김일성** 이라는 제목의 글,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죠.

20세기 정치사에 가장 성공적인 영도자로 공인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상되어 오시었다. 그이의 사상과 영도, 인품은 태양으로밖에 달리는 형상할수 없는 그처럼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김일성**주석은 태양의 존엄을 지니고 태양과 같이 일생을 빛내이신 전설적 위인이시었다.

양정아 : 네, 그뿐이 아닙니다. 주석님을 세계정치의 원로, 위인중의 위인 으로 칭송한 프랑스의 미테랑 전대통령, 주석님은 지난날은 물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인류의 특출한 영재 이시라고 한 칠레의 아렌데 전대통령, 내가 최대의 경의를 표하게 되는 분은 **김일성**각하이시라고 한 가네마대신, 그리고 주석님처럼 위대하신 사상과 태양의 풍모를 지니신 보지 못했다 며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보로 대를 두고 물려갈 귀중한 유산으로 정중히 모시고 있다는 가브기엘레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서기장을 비롯해서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다른 세계 각국, 각계인사들이 주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철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높아만가는 세인들의 칭송의 목소리에서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되는데요.

양정아 : 네, 노래 함께 듣죠. 태양절은 꽃계절

이 철 : 네, 오늘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은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정아 : 그렇죠. 지난해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우리는 주석님의 뛰어나신 인품과 고결한 덕망을 그대로 지니시고 주석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주석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 더 깊이 간직했고요. 주석님을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른 것처럼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과 융성번영 이룰 마음 더욱더 굳혔습니다.

이 철 : **김정일**장군님 우러러 2.16동지회 회원은 말합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우리 모두의 은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 모시려는 7천만 겨레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 조국통일은 기필코 이룩될 것이고 우리 조국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릴겁니다.

우리 통일전위들은 언제나 태양의 **들로 영원히 **김정일**장군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양정아 : 네, 노래 띄웁니다. 너와 나는 태양의 물결

이 철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서거 7주기를 맞으며 지난 7년간 주석님을 한없이 그리며 경모해온 내외의 뜨거운 마음, 여러분과 함께 펼쳐봤습니다.

양정아 : 네, 지금까지 이철, 양정아였습니다.

이 철 : 여러분 안녕히계십시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주석님을 향한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가장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한편 하루빨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집니다.

전 세계가 최대의 슬픔을 겪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만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태양위인상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게 되었으며 그간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효도덕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태양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불멸의 대위업을 달성하신 수령 중의 수령,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향도이념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 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영세불후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수억만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사상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연전연승하시는 세기적 기적으로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으며 일제를 타도하시고 미제를 내리막길로 끌어내리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단 한번의 편향도 없이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민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의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며 탁월하게 향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반제자주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달성하시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관되게 조국통일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최고업적은 바로 수령승계문제의 빛나는 해결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 그대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이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시는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십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고 있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사상을 옹호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혁명사에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강의 선군혁명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주체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전망할 수 있는 대위업을 달성하시었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 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감격적인 평양상봉을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심으로써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신기원을 개척하시었습니다.

이남민중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신데 이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해 주석님의 통일위업을 기필코 우리 대에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위인상에 탄복하는 한편 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강성대국을 하루속히 건설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이며 한민전의 향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열화같은 맹약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통일변혁의 기본열쇠로 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제기된 변혁과업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온 나라에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지도핵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성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절대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동지들과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서울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돌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사회주의붕괴 이후 붉은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명예의장대의 분열행진 속에 레닌묘를 찾아 헌화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새 세기 들어 더욱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창당 56돌을 맞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향도 하에 백전백승하며 혁명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쌓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지난 56성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며 주체위업완성으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혁명노정이었으며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돌파하여온 영광찬 승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혁명사에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창건하시었으며 이후 주체성이 강하고 광범한 대중지반을 갖추며 영도의 계승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역량을 강화하고 그 정치적 기능을 제고하는 주체의 원칙을 선행하시며 두 제국주의와의 준엄한 전쟁과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히 영도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ㅌ.ㄷ≫이래 조선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었으며 조선노동당의 모든 영도업적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을 떠난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시고 조선노동당과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을 어버이수령님을 향한 충효의 결정체로 다져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건설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전례 없는 불후의 대공적입니다.

천재적 사상가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조직사상수준이 최상에 이른 강위력한 당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이자 군이며 군이자 당이라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으로 군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 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심으로써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선군혁명의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당과 군을 혁명의 2대 기둥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오늘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는 혁명의 금성철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위에 이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등대로 거연히 솟아 웅장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조국통일의 비약적 국면을 창조하시는 한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시며 90년대 총포성 없는 조미대결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선노동당 창당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노련한 정치외교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장장 20여일간의 러시아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미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대미포위망을 완성하시었으며 더불어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으시었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가 선군영도와 신묘한 전략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는 한편 유일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국제적인 수령, 향도의 태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과 비범한 전략, 고매한 덕망, 불멸의 위업으로 21세기 자주시대를 거침없이 개척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만을 거듭하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당이요, 노동당시대야말로 가장 영광 넘치는 위대한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이남의 변혁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도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의 마음이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전당과 전민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며 장군님의 권위가 날을 따라 비상히 고양되고 나아가 절대화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경사스런 당창건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당면한 전술단계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하며 반미반이회창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겠다는 열화 같은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백전백승 전위당이 있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필승의 투쟁전략이 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0월 10일
서울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맞이하며

≪인터넷 구국의 소리≫가 1년 전 오늘, 9월 24일의 방송분을 시작으로 인터넷 상에 발표된 지 어느덧 한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하며 지난 과정을 총화하는 한편 재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구국의 소리≫방송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방송, 한민전의 목소리입니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70년 6월 1일, 전신인 ≪통일혁명당 목소리≫로 첫 전파를 날린지 31년이 넘게 자주민주통일의 여명을 밝혀주는 주체의 전파입니다.

지난 수십성상 불굴의 투쟁을 빛나게 전개하여 온 ≪구국의 소리≫방송이 있었기에 그 방송자료를 사상적 자양분으로 삼으며 수많은 주체주의자, 변혁운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전위조직의 정확한 방침을 따라 한국변혁운동이 곡절 없이 전진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국의 소리≫방송은 한국변혁운동가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안파쇼당국이 이 방송을 중상비방하는가 하면 방해전파를 쏘아대며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도 그 위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지난 기간 ≪수공업적≫이며 신속성과 정확성,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송자료배포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바로 ≪인터넷 구국의 소리≫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인터넷 구국의 소리≫활동을 총화해 보건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운 북녘형제들에게≫와 ≪국군장병들에게≫, ≪이역의 동포들을 그리며≫를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하여, 그 필요성이나 역량조건을 고려하여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오자, 탈자의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거나 월요일이라는 발표시점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터넷 배포체계≫를 창조하며 신속성과 정확성, 안정성에서 질적으로 혁신하였다는 점은 긍지높이 총화하여야 할 성과일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배포체계≫는 향후 공안파쇼당국의 그 어떤 탄압책동에도 절대로 허물 수 없는 불패의 배포체계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배포체계≫로 인하여 공안파쇼당국의 방해전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설사 우리 편집집단에 그 어떤 위해를 가한다고 할 지라도 제2, 제3의 편집집단이 등장하여 ≪인터넷 구국의 소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운동가들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자신의 사무실이나 수만개 ≪피시방≫에서 24시간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위조직의 방침을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구국전선≫ 편집국의 유례 없는 지지격려문도 이러한 ≪인터넷 배포체계≫에 대한 고무와 평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전은 한번도 노선과 정책에서 오류를 범한 적이 없는 불패의 애국적 전위대오입니다.

따라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한 한국변혁운동는 오직 승리의 궤도만을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변혁의 사령탑인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널리 선전하는 ≪인터넷 구국의 소리≫ 사업을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며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한돌을 맞이하며 다시금 처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더욱 혁신하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할 열화 같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 하여금 모든 운동가들이 더욱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과 친숙해지며 가능하면 직접 그 방송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고 격려해 준 모든 동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한편 이후 더욱 혁신하고 전진하겠다며 다짐하는 바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을 삼는 한민전과 ≪구국의 소리≫방송이 있는 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은 확정적입니다.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90(2001)년 10월 12일
서울